

강민저(姜敏著)

안유경

1651(효종 2)~1705(숙종 31). 조선 중기의 학자이다.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내숙(來叔), 호는 모산재(茅山齋)로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茂長) 출신이다. 아버지는 함양군수를 지낸 강필주(姜弼周), 어머니는 황주 변씨(黃州邊氏) 변태운(邊泰允)의 딸이다. 강희맹(姜希孟)의 8세손으로, 증조할아버지 강계오(姜繼吳)가 전라남도 영광에서 대대로 살다가 처가와 외가가 있는 지금의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에 정착하였다.

강민저는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의지가 굳고 문장이 탁월하여 37세 때인 1687년(숙종 13) 정묘소(丁卯疏)를 올려 민생 문제와 풍속의 퇴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정묘소’는 윤선거(尹宣舉)와 송시열(宋時烈) 사이에 일어났던 논쟁에 대해 자세하게 열거하여 스승인 송시열을 변호한 글이다.

43세 때인 1693년(숙종 19)에는 「자경문(自警文)」을 지었다. 울곡도 「자경문」을 지은 적이 있는데,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20세 되던 해 봄에 외가인 오죽헌으로 돌아와, 자신이 살아갈 인생의 이정표를 정립하고,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 스스로 경계하는 글이었다. 울곡의 글은 11조항으로 되어있었다. 먼저 뜻을 크게 가져야 한다는 입지(立志),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은 말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므로 과언(寡言), 잡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심(定心),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근독(謹獨),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일을 처리할 때 적용하기 위한 독서(讀書), 이로움을 탐하는 마음을 살피기 위한 소제욕심(掃除慾心), 해야 할 일은 정성을 다하라는 진성(盡誠), 항상 한 가지의 불의를 행하고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언더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정의지심(正義之心), 스스로를 돌이켜 깊이 반성하고 남을 감화시키려는 감화(感化), 충분한 수면(睡眠), 꾸준히 노력하는 용공지효(用功之效)가 있다.

이듬해에 인현왕후가 복위되고 장희빈이 다시 희빈으로 강하될 때였다. 강민저는 온건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남구만(南九萬)을 장희재(張希載), 민암(閔黯)과 함께 죽여야 한다는 강경한 상소를 올렸다. 서인으로서 1694년(숙종 20)에 장희빈을 옹호하던 남구만을 탄핵하다가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되었고, 이듬해 다시 남구만 일과의 죄를 규탄하는 소를 올렸다가 진도(珍島)에 유배되었으나 그로 인해 ‘꿈은 선비’라는 칭호를 얻었다.

잠시 강민저가 남구만 등의 죄를 규탄하며 임금에게 올린 상소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신과 부자의 의리는 천지의 이치이고 사람의 윤리입니다. 그러므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있어 임금은 아버지와 같고 왕후는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세상의 도의(道義)가 비록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천성은 본시 없어지지 않았으니 인현왕후께서 이미 폐출되셨다가 도로 복위(復位)되실 적에 기뻐하고 경축하는 마음이 귀천과 중외(中外)의 차이가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실로 천리와 인륜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해치게 되고, 신하로서 임금과 모후(母后)를 해치게 된다면 그의 죄는 진실로 천지 사이에서 달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흉악한 사람이 터무니없는 것을 날조하여 글로 표현해서 버젓이 대궐 안에 흘러들어가서 예람(睿覽)까지 거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을 논한다면 곧 대역무도하니, 이는 바로 『춘추(春秋)』에서 말한 난신적자로 누구라도 죽여야 할 자들입니다. 다시 국모(國母)를 책봉(冊封)하던 날 맨 먼저 두 사람의 머리를 베어 도성(都城) 문에 내건 뒤에야 천지의 대의(大義)를 밝히고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아직도 그들의 죄악을 밝히지 않아 생사(生死)의 중간에 두고 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러한 상소문을 보면 그의 언사가 몹시 강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강민저는 3년 만에 풀려 나온 뒤에는 벼슬을 단념하고 향리에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오직 학문에 전념하였다. 여러 번 관직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혼탁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수 간에 모산초당(茅山草堂)을 짓고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등 당대의 명유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시문을 남겼다. 1705년 향년 55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경학과 『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에 역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남구만에게 보낸 서찰인 「상남상(上南相)」은 18장에 달하는 장편의 명작이며, 또한 우국충정의 내용이 담긴 많은 시를 남겼다. 저서로는 『모산집(茅山集)』이 있다.

『모산집』은 시문집으로 모두 3권 2책인데, 목활자본이다. 1911년 7세손인 강연수(姜淵秀)에 의하여 편집하여 간행되었다. 권두에 송병순(宋秉珣)의 서문과 권말에 방손인 천수(天秀)의 발문이 있다. 현재 국민대학교 도서관과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1에는 시 179수, 권2에는 소 4편, 권3에는 서(書) 9편, 부록에는 행장·묘표·동국문헌명신록(東國文獻名臣錄) 등이 있다. 시의 「우차차산견증(又次次山見贈)」은 안연(顏淵)의 안빈낙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수행하는 이들을 찬양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갑술소(甲戌疏)」·「을해소(乙亥疏)」는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仁顯王后)와 후궁인 장희빈(張禧嬪)에 대한 일련의 사건에 관하여 적은 내용이다. 「정묘소(丁卯疏)」는 숙종 당시의 퇴폐적인 풍속에 관하여 정화를 촉구하는 내용

이다. 서 가운데 「상남상(上南相)」은 인현왕후와 장희빈과의 처리가 부당하므로, 당시의 영의정인 남구만(南九萬)을 규탄함과 아울러 6조목의 소신을 밝힌 내용이다. 부록의 「동국문헌명신록(東國文獻名臣錄)」은 기사사화 때에 화를 입은 신하들의 명부를 열거하고, 그의 죄상을 기록한 것이다.

참고할만한 문헌으로는 『모산집(茅山集)』, 『숙종실록(肅宗實錄)』 등이 있다.

강익문(姜翼文)

안유경

1568(선조 1)~1648(인조 26).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진주(晉州). 휘(諱)는 익문(翼文)이고 자는 군우(君遇), 호는 당암(巖菴)으로 합천 출신이다. 성이 강씨(姜氏)인 사람들은 본래 진양(晉陽) 사람인데, 그의 4대조 강승전(姜承顥) 때부터 합천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였다. 강희필(姜姬弼)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강인수(姜仁壽)이며, 아버지는 관관 강세탁(姜世倬)이다. 조부 강인수와 부친 강세탁은 자손이 귀하게 되었다고 해서 관작이 추증되었는데, 강인수는 사헌부(司憲府)에 강세탁은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 1589년에 진사가 되었고, 1606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이듬해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에 임명되어 세자 시장원의 설서(說書)를 겸하였다.

어려서 사부(詞賦)로 명성을 얻었고, 22세(1589)에 진사(進士)가 되고 39세(1606)에 증광시(增廣試)에 급제하였다. 1608년에 성균학유(成均學諭) 겸 강원설서(講院說書), 1609년(광해군 1년)에 예조좌랑(禮曹佐郎)이 되었다. 4년간 정언(正言) 3회, 헌납(獻納) 4회, 지평(持平) 6회, 문학(文學) 5회를 역임했다. 1613년에는 장령(掌令)을 거쳐 필선(弼善)이 되고 다시 제용감정(濟用監正), 그리고 사간(司諫)이 되었다. 이 해에 영창대군(永昌大君)과 관련된 대옥사(大獄事)가 일어나 이덕형(李德馨)을 옹호하다가 정인홍(鄭仁弘), 이성(李惺) 등과 대립하였다. 이것이 1613년 광해군 5년에 일어난 계축옥사(癸丑獄事)인데, 대북파 정인홍(鄭仁弘)·이이첨(李爾瞻) 등이 박응서(朴應犀)·서양갑(徐洋甲) 등을 문초할 때 광해군의 이복동생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옹립하려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어 영창의 외조부이며 인목대비의 부친인 김제남(金悌男)을 사사시키고 영창대군을 서민으로 강등하여 강화도로 유배시켰다가 죽인 사건을 말한다.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살해하자 상소를 올려 극언한 후 충원현감(忠原縣監)으로 좌천되었다가 9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풀려났다. 이듬해 통례원봉례(通禮院奉禮)를 거쳐 다시 제용감정(濟用監正)이 되었으나, 은퇴하여 안락한 여생을 보냈다. 통정(通政)으로 승급된 후 곧바로 공조참판(工曹參判)을 제수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향년 81세로 죽었다. 후에 자헌대부(資憲大夫),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추증받았다.

그는 평소에 사치를 싫어하여, 옷은 몸에 편히 맞고 음식은 입에 맞으면 만족했으며, 항상 자제들에게 ‘자기 일로 욕을 입지 말도록’ 타일렀다고 한다. 성품은 신중하고 성실하여 겉으로 꾸미는 것을 싫어하였고, 불선(不善)한 것을 보면 조

금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하지 못한 자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의령(宜寧)의 낙서(洛西)에 장사지냈는데, 정부인(貞夫人) 합천 이씨(陝川李氏) 또한 89세에 세상을 떠나 합장하였다. 3남 2녀를 낳았는데, 장남 강대수는 동도윤(東都尹)으로 세 번 결혼해 2남 3녀를 낳았다. 아들은 강휘연(姜徽衍)·강휘만(姜徽萬)이고, 사위 세 사람은 현감인 이당규(李堂揆)와 김정익(金庭翊)·이시격(李時格)이며, 또 서출의 아들 강휘윤(姜徽尹)과 사위 이명길(李命吉)이 있다. 차남 강대적(姜大適)은 강휘민(姜徽敏)·강휘중(姜徽重)·강휘망(姜徽望)을 낳았고, 사위 두 사람은 조화(趙瑋)·오선기(吳善基)이며, 서출의 아들은 강휘준(姜徽俊)·강휘걸(姜徽傑)이다. 막내 강대연(姜大延)은 강휘정(姜徽鼎)·강휘진(姜徽晉)을 낳았고, 사위 세 사람은 이두추(李斗樞)·김옥(金鑄)·송정태(宋廷泰)이다. 공의 장녀는 별제(別提) 이어한(李汝漢)에게 시집가서 4녀를 두었는데, 사위는 정유우(鄭有佑)·안시추(安時追)·이의겸(李義謙)·하자혼(河自渾)이다.

차녀는 참봉(參奉) 정유숙(鄭惟熟)에게 시집갔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명(銘)이 쓰여 있다. “성실하면서도 곧았고 질박하면서도 순후하였으므로, 장수하는 길상(吉祥)이 있었을 뿐더러, 게다가 자손들까지 번성하였도다.”

지금도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12-16번지에는 조선 중기의 문신 강익문이 받은 교지 <당암 강익문 교지(巖庵 姜翼文 教旨)>가 보관되어 있다. 이것은 진주 강씨 은열공파 진천군 종중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교지는 모두 4매인데, 1589년 강익문이 진사 급제한 백패(白牌) 1매, 1606년 문과 급제한 홍패(紅牌) 1매, 1648년 예조참판 증직 교지와 예조판서 증직 교지 2매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어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2007년 6월 28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25호로 지정되었다. 문집으로는 『당암집』이 있다.

『당암집』은 강익문의 9대손 강두섭(姜斗燮)과 10대손 강봉노(姜鳳魯)가 주관하여 편찬한 문집으로, 필사본이며, 명확한 편찬연대를 알 수 없다. 문집은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집의 맨 앞에는 김도화(金道和)가 쓴 서문이 있다.

권1에는 강익문이 지은 「정기가부(正氣歌賦)」 1편과 3수의 시(詩), 만(挽), 발(跋), 제문(祭文), 행장(行狀), 묘갈명(墓碣銘)이 실려 있다. 권2에는 우선 부록으로 강익문의 가계와, 강익문의 17대조인 강민첨(姜民瞻)에 관한 고려사 열전이 실려 있다. 그리고 인조(仁祖)가 내린 어필전교(御筆傳教), 허목(許穆)이 쓴 묘갈명, 강두섭이 쓴 가장(家狀), 장석영(張錫英)이 쓴 행장(行狀), 수시(壽詩), 여러 선비들과 강익문의 아들 강대수가 강익문의 신원을 위해 지은 상소문, 다른 사람들이 강익문에게 보낸 편지, 동도회화도(同道會話圖), 동도회화록(同道會話錄), 소유록(疏儒錄), 상향문(常享文), 강봉노(姜鳳魯)의 후지(後識), 유필영(柳必永)의 발문이 실려 있다. 원래 강익문은 남긴 글이 많았으나 병란으로 대부분 소실되

어 흩어진 유고(遺稿)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듯하다.

참고할만한 문헌으로는 『선조실록(宣祖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국조방목(國朝榜目)』,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기언(記言)』 등이 있다.

강인회(姜寅會)

안유경

1807(순조 7)~1880(고종 17). 조선 후기의 유학자이다.

자는 태화(太和), 호는 춘파(春坡)로 1807년 정묘 12월 27일에 고창군 대산면 장동리에서 아버지 예당공(禮堂公) 강재형(姜在衡)과 어머니 함풍 이씨(咸豐李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강인회는 어려서부터 용모와 재질이 뛰어났으며 타고난 성품이 효도와 우애가 돈독하였다. 5세에 모친을 여의고 슬퍼하기를 어른처럼 하여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며, 7세 때 마을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일찍부터 시를 짓는 재주가 뛰어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서당 아이들 수십 명과 같이 배우는데 배우자마자 바로 외우며 다른 아이들이 읽는 것을 듣기만 하였다. 10세 미만에 견식이 같은 또래를 앞지르니 재주 있다는 소문이 원근에 퍼졌다.

서당 선생이 어느 날 어른들을 모아 잔치를 열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모두 공부를 그만두고 먹을 것을 찾고 있었으나 강인회는 홀로 방 한 구석에서 책 읽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모를 섬김에 친어머니처럼 하였다. 어느 해 어머니 제삿날에 깊이 잠들어 있었으므로 집안사람들이 어리다고 깨우지 않고 제사를 지냈는데, 잠이 깨자 새벽까지 울면서 평생 동안 죄스럽게 여겼다.

16세 때에 학문에 열중하여 기울어진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을 싸들고 산사(山寺)에 들어갔다. 2년 동안 공부하다가 18세 때 깨달은 바가 있어 당시 성리학으로 이름 높은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다. 24세 때 부친의 상을 당하자 슬퍼하고 초상을 치르는데 예법대로 하였다. 26세 때 탈복(脫服)하자, 가족을 이끌고 기정진 선생이 사는 장성(長城)으로 이사하여 선생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57년 동안을 받들고 섬기며 학문에 정진하여 그의 뛰어난 제자가 되었다. 당시 기정진의 문하에는 이희석(李僖錫)·박만채(朴萬彩)·정면규(鄭冕奎)·문동황(文東璜)·기문현(奇文鉉)·안중섭(安重燮)·유성렬(庾成烈)·김유(金瀏)·이돈형(李敦亨)·조성가(趙性家) 등 쟁쟁한 유생들이 있었으므로 항상 그들과 도의(道義)로 교유하며 학문에 정진하였다.

52세 때 기정진의 회갑을 맞이하여 ‘차노사선생회갑운(次蘆沙先生回甲韻)’이라는 시를 지었으며, 1874년 갑술에 부인 밀양박씨가 세상을 떠났다. 강인회는 나이가 들수록 학문이 심오하고 인품이 높아갔으므로 기정진 선생이 연로하시자 그의 문하에 와서 학업을 계속하는 자가 많았다. 박용태(朴容泰)·기용연(奇容

衍)·기홍연(奇弘衍) 등이 그 대표적 인물들이다.

1879년 12월 29일에 기정진 선생이 죽으니 김인회는 병이 깊어 견지도 못하면서 자리를 만들어 곡하였다. 이듬해 2월 하순에 기정진 선생을 장사지낼 때 제문을 지어 병 때문에 가마를 타고 황룡강(黃龍江)을 지나 상여가 멈춘 자리에 가서 곡하였다. 모두가 병이 더할까 걱정하여 말렸으나 김인회가 말하기를, '선생의 관 앞에 쓰러져 죽는다면 나의 영광이다'라고 하였다. 귀가하자 과연 병이 더하여 그해 3월 3일에 죽으니 향년 74세이다. 임시로 집 뒤에 장사했다가 1891년 4월 1일에 장성(長城)의 금계봉(金鷄峯) 오좌원(午坐原)에 안장하였다. 1889년(고종 27)에 향천(鄉薦)과 도천(道薦)으로 조산대부동몽교관(朝散大夫童蒙敎官)을 증직하였고, 그 뒤 1982년에 영광(靈光) 묘량(畝良) 대왕산(大王山) 선영하 임좌(先塋下壬坐)로 안장하고 비문을 세웠다. 저서로 『춘과유고』가 있다.

『춘과유고(春坡遺稿)』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강인회의 시문집이다. 모두 1권 1책으로 석인본이다. 손자인 강천수(姜天秀)가 수집한 것을 1974년에 후손 강복원(姜福遠) 등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그리고 5대손 강성창(姜聲昌)이 후손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그의 친척인 강성섭(姜聲燮)에게 청하여 국역한 것을 정리하여 출간하였다. 권두에 최윤환(崔允煥)의 서문과 권말에 강복원의 발문이 있다. 현재 전주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시 96수, 부(賦) 6편, 서(書) 5편, 잡저 8편, 서(序) 6편, 기(記) 5편, 축문 2편, 제문 7편, 부록으로 시 4수, 서(書) 8편, 제문 5편, 만장(挽章) 15수, 행장 1편, 묘갈명 3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오언절구(五言絕句)·사언율시(四言律詩)·오언율시(五言律詩)·칠언절구(七言絕句)·칠언율시(七言律詩) 등의 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부록에는 「노사선생왕복시서(蘆沙先生往復詩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우만(奇宇萬)이 찬한 행장과 조성가(趙性家)가 찬한 묘갈명, 최윤환(崔允煥)이 찬한 묘표가 있다.

잡저의 「어제삼정책문(御製三政策問)」은 1862년(철종 13) 삼남(三南)에 민변이 발생하자 삼정에 대한 개선책으로 올린 글인데, 11개 조목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광주감시(光州監試)에서 이루어진 청묘법(靑苗法)을 내용으로 한 「조적책문(糶糶策問)」과 장성감시(長城監試)에서 이루어진 전결(田結)·계묘법(計畝法)·한전(限田) 등을 내용으로 한 「전부책문(田賦策問)」, 창평감시(昌平監試)에서 이루어진 「군액책문(軍額策問)」 등은 당시의 경제·군사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보성에서 일어난 위보사건을 소개한 「성토위보회문(聲討僞譜回文)」과, 간사한 소인들이 군자를 시기하여 무고를 일삼으니 이와 같은 풍습을 퇴치하여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향속을 돈독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변무통문(辨誣通文)」 등은 당시의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참고가 된다.

특히 강인회 글의 특징은 잡저(雜著)에 있다. 그 중에서도 1862년에 작성된 4개의 책문에서 강인회의 사회경제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강인회는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왕이 먼저 성학에 힘쓰고 습속을 바르게 하고, 어진 인재를 등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그는 삼정 자체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였는데, 전정에서는 농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궁중이나 부자들에게 보다 많은 과세를 주장하였으며, 군정에서는 정예병을 육성하고 호포제로의 전환을 주장하였고, 환곡에서는 상평창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는 조세 수납의 부정뿐만 아니라 세제 자체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은 것으로 노사학파의 주장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개혁론에 속한다. 이외에도 그는 고흥 나로도에서 타계한 이건명(李建命: 1663~1722)의 서원 건립을 위하여 「사충서원품목(四忠書院稟目)」과 「예부발문(例扶發文)」을 지었으며, 족보위조사실을 고발한 「성토위보회문(聲討僞譜回文)」이나 남원출신의 정언 박규서(朴奎瑞)가 지위가 높은 참판 김한익(金漢益)에게 무고한 것을 알리는 「변무통문(辯誣通文)」을 지었다.

강정환(姜鼎煥)

안유경

1741(영조 17)~1816(순조 16). 조선 후기의 학자이다.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계승(季昇), 호는 전암(典庵)으로 칠원(漆原 : 지금의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출신이다. 아버지는 장릉참봉(章陵參奉) 강주제(姜柱齊)이며, 어머니는 전주 최씨(全州崔氏)로 최진망(崔震望)의 딸이다.

미호(溟湖) 김원행(金元行)의 문인으로서 17-18세에 문예(文藝)를 겸비하고 식견에 해박하였는데, 스승 김원행이 ‘심시(尋是)’라는 두 글자를 써주고 격려하였다. 성리학에 밝아 이에 대한 저술이 여러 편 있으며, 이직보(李直輔)·김이안(金履安) 등과 학문을 토론하였다.

향시에 응시하였을 때에 시권(試券)을 보고 “이같이 훌륭한 문장이 빛을 보지 못한 것은 유사(有司)의 과실이다”라고 하고, 특별히 수선(首選)에 올려놓았다. 또한 응제(應製) 때에 정조가 그의 문사(文詞)를 칭찬하고 붉은 보자기로 시권을 싸서 집에 소장하게 하였다. 정조가 영남 선비 가운데 문장에 능한 자를 선발하여 규장각 강의(講義)를 교정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도신(道臣)이 그를 추천하였다. 이 일을 마치자 왕은 쌀과 종이 및 붓을 상으로 주었다.

그는 『심경(心經)』·『근사록』·『주자대전』 등을 강론하면서 후진양성에 전념하였으며, 이황(李滉)의 「천명도(天命圖)」를 토대로 「심성도(心性圖)」와 「대학강령도(大學綱領圖)」 등 고금의 성리설에 관한 많은 도식과 차록(筭錄)을 만들어 성리학에도 이바지하였다. 저서로는 『전암문집』이 있다.

『전암문집(典庵文集)』은 8권 4책으로 목활자본이다. 1927년 5대손 강대우(姜大瑀)가 산일되고 남은 저자의 유고를 산정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승규(金昇圭)의 서문이, 권말에 김용진(金容鎭)의 발문이 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1~3에는 시 399수, 권4에는 서(書) 41편, 권5에는 서(序) 10편, 기(記) 14편, 발(跋) 3편, 잠(箴) 1편, 명(銘) 2편, 권6은 제문 6편, 애사 2편, 축문 4편, 상량문 2편, 행장 4편, 행록 1편, 유사 1편, 묘지명 2편, 권7은 잡저 11편, 권8은 부록으로 행장·가장·묘갈명·사우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詩)에는 곤양(昆陽) 통영(統營) 진해(鎭海)의 정부(貞婦) 3인의 행적을 읊은 시, 1812년 4월 정주성(定州城) 화공(火攻)으로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진압된 것을 기뻐하며 지은 시와, 명(明)나라가 후금(後金)을 칠 때 원병으로 나가 활동했던 강홍립(姜弘立)

과 김응하(金應河)의 전기인 강로전(姜虜傳)과 김장군전(金將軍傳) 그리고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의 기록인 강도록(江都錄)과 남한록(南漢錄)을 읽고 감상을 읊은 시 등이 있다. 시 가운데 강연에서 여러 문인에게 칠언시로써 성리설을 논한 것이 있다. 그 제목은 「중용천명지인물동(中庸天命之人物同)」·「맹자견우인성인물부동(孟子犬牛人性人物不同)」·「미발(未發)」·「이발(已發)」·「심(心)」·「성(性)」·「정(情)」·「의(意)」·「지(志)」·「청명기(清明氣)」·「잡류기(雜類氣)」·「변화기(變化氣)」이다.

또한 오언시로써 13변(辨)을 지어 제생(諸生)들에게 보인 것이 있는데, 「본연기질변(本然氣質辨)」·「성유선악변(性有善惡辨)」·「신심일정이불부소식변(身心一定而不復消息辨)」·「기질형질변(氣質形質辨)」·「심여기질변(心與氣質辨)」·「인물성부동변(人物性不同辨)」·「성범심부동변(聖凡心不同辨)」·「일원이체변(一原異體辨)」·「미발이발본연기질변(未發已發本然氣質辨)」·「이기단지겸지변(理氣單指兼指辨)」·「본연편전변(本然偏全辨)」·「일원지분수변(一原之分殊辨)」·「분수지분수변(分殊之分殊辨)」 등이다.

서(書)에는 스승 김원행(金元行)에게 제례(祭禮)에 대해 17조목으로 문의한 것이 있다. 또한 이정인(李廷仁)과 성리설을 논한 것이 여러 편 있다. 잡저에는 「대학격치장강의(大學格致章講義)」·「미호선생어록(溪湖先生語錄)」·「성리차록(性理筭錄)」·「성리후설(性理後說)」·「대학강령도(大學綱領圖)」·「성범개구명덕도(聖凡皆具明德圖)」·「심성정도(心性情圖)」·「천명성부잡기품도(天命性不雜氣稟圖)」·「간서차록(看書筭錄)」이 있다. 특히 「성리차록」은 성리학의 여러 논제들에 대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선현들의 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 있다. 이와 같이 저자는 시나 그 밖의 글들에 있어서 경학 및 성리학의 사상을 표현하는 데에 열중하였다.

참고할만한 문헌으로는 『전암문집(典庵文集)』이 있다.

강호보(姜浩溥)

안유경

1690(숙종 16)~1778(정조 2).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양직(養直). 호는 사양재(四養齋)이다. 강진휘(姜晋輝)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강덕후(姜德後)이고, 아버지는 시정(寺正) 강석규(姜錫圭)이며, 어머니는 김성급(金成岌)의 딸이다.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의 문인이다. 1754년(영조 30) 통덕으로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으며, 같은 해 교리를 거쳐 현감으로 나가 크게 치적(治績)을 남겼다.

강호보는 1690년 9월 25일에 태어났다. 6세 때에 아버지 강석규가 별세하자 일가족이 연천(漣川)으로 이사하였다. 8세 때 『소학』을 배우기 시작하여 육경(六經)과 사서(史書)를 질문하였다. 부친의 사망 이후 집안형편이 빈곤하였는데, 팽성(彭城)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일찍이 노모의 봉양을 위한 목적으로 과거에 응시한 적이 있었다. 나이 13세 때 경기도 회시(會試)에 수석을 차지하였으나 ‘무적(無籍)’이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었다. ‘무적’은 국적이거나 학적 따위가 해당 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쓰인다. 20대 중반쯤 집안의 경제적 여유를 확보한 후에, 한원진을 배알하고 그 문하에서 성리학을 공부하였다.

1726년(영조 2)에 생원시(生員試)에 1등으로 합격했으나 이후 경학에 매진할 것을 결심한다. 그의 호가 사양재(四養齋)인 것도 이 무렵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강호보가 거쳐하던 방의 편액에서 유래하였는데, 성(性)·기(氣)·재(材)·량(量) 네 가지를 기르고자 하는 강호보의 학문적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편액(扁額)은 종이, 비단, 널빤지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를 뜻한다.

강호보의 학문과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아마도 스승인 한원진이다. 강호보는 한원진이 『주자언론동이고(朱子言論同異攷)』를 통해 주자의 초년과 만년설의 동이(同異)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500여 년 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주자언론동이고』는 주자의 문집 속에 보이는 동일 개념에 대한 차이를 정리한 책으로, 시작한 사람은 송시열이었으나 실제 작업은 한원진의 손에서 완성되었다. 단순히 용어사용의 차이나 기록의 착오 또는 견해의 바뀔을 밝히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주자의 세계관, 고전 해석 방법 등을 깊이 있게 해명한 책이다. 이이→김장생→송시열→권상하로 이어지는 학문

적 성취도 한원진으로 말미암아 천명되었다고 보았다. 한원진이 “주자에게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이·김장생·송시열·권상하를 빛내기도 하였다”는 평가는 주자 이래로 이이를 거쳐 권상하에 이르는 도통(道統)의 적전(嫡傳)으로 한원진을 자리매김한 것이다.

강호보가 20대에 한원진에게 사사 받은 것은 어려서부터 그의 학설에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강호보는 한원진의 문하에 들어가기 전부터 당대의 호락논쟁(湖洛論爭)에 대해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다르다는 한원진의 주장이 옳고,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이간(李柬)의 논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心)의 선악문제를 기질의 청탁(淸濁)과 관련시켜 이해하였다. 기질의 청탁이 반반인 사람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으며, 완전히 맑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성인(聖人), 완전히 탁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우인(愚人)이 된다고 하였다. 기질의 맑고 탁함, 순수하고 잡박함은 성인과 보통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되며, 기질의 통하고 막힘, 온전하고 치우침은 사람과 사물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강호보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사람은 인의예지의 성품을 부여받은 존재이고, 사물은 그렇지 못한 존재이다.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만들 때 이 과정에서 오행의 이치가 오행의 수기(秀氣)에 들어가면 그것은 오상(五常)의 성품이 되고, 오행의 ‘수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오상의 성품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람과 사물의 차이는 오행의 ‘수기’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강호보는 한원진의 문하에서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송능상(宋能相)·권진응(權震應)·김근행(金謹行) 등과 학문적인 토론을 하였고, 김용경(金龍慶)·정존겸(鄭存謙)·조엄(趙暉)·이석재(李碩載) 등의 관료들과도 교류관계를 가졌다.

저서로는 문집인 『贅言』과 문장론인 『불후방(不朽方)』 3편, 역사서인 『사유(史腴)』 10편, 예서인 『상례보유(喪禮補遺)』 1권, 학자의 실천을 경계한 『하학일과(下學日課)』 3권, 연행록인 『상연록(桑蓬錄)』 4권 등이 있다. 강호보는 일찍이 “성인의 학문은 모두 『춘추(春秋)』에 있다”라고 하여 춘추의 사상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역대의 여러 주석들이 경전의 본뜻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그는 『춘추』의 경문 아래 역대의 주석을 기재하고 단락마다 정자와 주자의 논의를 적었으며, 정자와 주자의 해석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해석을 붙여 『춘추원류(春秋源流)』라고 이름 하였다. 이 책은 100여 편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데 탈고하지 못하고 강호보가 사망한 후 잃어버려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소론에 속했던 인물로써 여러 차례 정치적 위기를 겪었으나 벼슬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정조 초에 벼슬길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였는데, 특히 주기론(主氣論)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 뒤 저술과 후학육성으로 여생을 보냈으며, 편저로는 『주서분류(朱書分類)』가 있다.

『주서분류』는 강호보가 주자의 서간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편집한 책이다. 필사본으로 54권 54책이다. 저작 시기는 미상이며, 현재 규장각 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중국 송나라 주희(朱熹)의 글을 내용에 따라 분류한 책으로, 서문·발문·간기(刊記) 등이 없으며 저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단지 『조선도서해제(朝鮮圖書解題)』에 강호보 편저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 필사본이 원본인지의 여부는 미상이나 편자의 이름이, 원래 기재되어 있었거나 그 후손이 보관했던 것을 수집할 때 확인했을 수도 있다. 이 책은 주서(朱書)에 관한 체계적인 분류의 대작이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주자의 글을 편집한 저서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큰 것이다. 따라서 방대한 양을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학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된다.

이 책은 이기(理氣)를 비롯하여 태극(太極)·이기선후(理氣先後)·이자훈의(理字訓義)·천지(天地)·천문(天文)·사시(四時)·혼천의(渾天儀)·역법(曆法)·기수(氣數)·도기(道器)·음양(陰陽)·체용(體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의 힘으로 그 방대한 양을 섭렵하여 이처럼 분류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며 그 노심초사의 정력이 집약된 결과이다. 주자서를 이용하는 학자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 이런 분류가 드물었다는 데에도 이 책의 가치가 더해진다. 또 주자의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경서·문학 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용하기가 대단히 편리하게 되어있다. 한편 동일한 편자(編者)가 편한 24권 8책으로 된 활자본이 성대도서관, 국립도서관, 이대도서관 등에 전해진다. 이 활자본은 1928년 간행되었다. 이 『주서분류』 중에서 일부분만 뽑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서인-노론계의 주자 도통의 문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다. 일찍이 이 문체를 시도한 이는 송시열(宋時烈)이었고, 이것이 한원진을 거쳐 강호보에게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것은 강호보의 40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었다.

고광선(高光善)

안유경

1855(철종 6)~1934. 근대의 학자이다.

본관은 장택(長澤). 자는 원여(元汝), 호는 현와(弦窩)이다. 복헌(復軒) 고정헌(高廷憲)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고제열(高濟說)이다. 아버지는 호은(湖隱) 고박주(高璞柱)이며, 어머니는 행주 기씨(幸州奇氏) 기우진(奇禹鎭)의 딸이다.

1855(을묘)년 철종 6년 12월 23일에 광주 복촌(復村)의 집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의 모습이 민첩하고 단정하였으며, 8세에 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글 읽기를 잘하여 칭찬을 많이 받았다. 10세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곡하고 슬퍼하기를 어른처럼 하였다. 세 살짜리 동생을 보살피고 계모 광산 김씨를 친어머니처럼 섬기니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다. 어려서 한 고향 사람인 덕암(德巖) 나도규(羅燾圭)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제자백가를 두루 섭렵하였다. 그 후에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문하에도 출입하면서 천인성명(天人性命)의 깊은 뜻과 예법의 본질을 배웠다. 일용의 예절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부지런히 질문하여 깨우쳤으니, 이 때문에 기정진이 기특하게 여기고 더욱 성실하게 지도하였다. 성격은 온순하였으나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용감하게 고쳤으므로 스승이 이를 장하게 여겼다. 부친상을 당하고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도 상례를 오로지 원칙대로 지켰으며, 음식을 절제하고 슬픔을 다하였다. 그와 교유한 인물로는 설진영(薛鎭永)을 들 수 있다.

학문에 전념하고 벼슬하지 않다가 1905년(광무 9)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숨어 지내면서 이듬해에 엄이재(掩耳齋)를 세웠다. ‘엄이’는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시끄러운 세상일에 대해 귀를 막고 살고자 했던 것으로, 스승인 나도규 역시 봉황산의 덕암에서 살았으므로 그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러나 배우러 오는 학생들의 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문인들이 힘을 모아 1919년에 그 옆에 봉산정사(鳳山精舍)를 지어서 이곳에서 강학하였다. 고광선은 1918년 고종이 승하하자 엄이재의 북쪽 바위에서 통곡하였는데, 이를 읍궁암(泣弓巖)이라고 부른다. 그가 죽자 1936년에 그 곁에 영당을 지었고, 이를 바탕으로 1964년에는 봉산사를 세웠으며, 1975년에는 엄이재를 중건하였다. 『봉산사지(鳳山祠誌)』의 문인록에 올라 있는 고광선의 문인 수는 650명에 이른다. 『봉산사지』는 1978년에 간행된 봉산사의 기록이다.

고광선이 경영했던 엄이제나 봉산정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봉학마을의 봉황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주변에는 재봉산과 극락강, 송학산 등이 있으며, 마을과는 많이 떨어져 있어서 격리된 느낌을 받는다. 엄이제 현판은 현재 고직사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걸려 있는데, 이 현판에는 1916년 봄에 사촌인 고광은(高光殷)이 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왼쪽 뒤흘에는 봉산정사가 세워져 있고, 엄이제 뒤흘 오른편으로 고광선의 영당인 봉산사가 자리하고 있다. 엄이제 관련 시문으로는 주인 고광선의 기와 시, 동문인 송정묵의 기와 시, 그리고 김만식·정운오·윤경혁·양희갑·최운환·나종우 등의 시가 각각 문집에 남아있다. 고광선의 「엄이제기」를 보면, 원래의 엄이제의 경관과 엄이제라는 이름의 의미 등을 알 수 있다. 봉산정사의 관련 시문으로는 고광선과 문인들인 이종택·양희갑·노종룡·빅병주·최운환·여창현 등의 시가 각각 문집에 남아있다.

고광선의 학문세계에 대해서는 그의 문집량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편지글이나 잡저 등은 일상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것을 추출해내기가 힘들다. 그러나 실천적 의리정신을 강조한 내용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군자는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서 그 행동을 바꾸지 않고, 할 만한 때에 할 만한 것을 하는 사람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의리정신은 제자인 윤경혁(尹璟赫)이 쓴 「언행록(言行錄)」에 잘 나타나 있다. 「언행록」에 따르면, “조정에서 녹을 먹는 자는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없어진 뒤에는 의리상 마땅히 죽어야 하나 죽지 않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된다. 그 죄 됨을 알면 마땅히 문을 닫아걸고 자취를 감추어서 바깥사람들과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물며 붓을 잡고 역사가의 일을 하는 사람임에라”라고 하여 나라의 녹을 먹은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의 처신을 특히 강조하였다.

1934년 80세에 이질에 걸려 현와정사에서 운명하였다. 이듬해인 1935년 1월 20일 정사의 남쪽 산록 사좌원(巳坐原)에 안장하였다. 저서로는 『현와유고(弦窩遺稿)』가 남아있다. 『현와유고』는 1956년 고광선의 문인들이 그를 흠모하여 간행한 것이다.

『현와유고』는 근대의 학자인 고광선의 시문집이다. 모두 16권 8책으로 석인본이다. 1962년 박하형(朴夏炯) 등 문인들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송재직(宋在直)의 서문과 권말에 박하형의 발문이 있다. 현재 장서각 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1에는 시 165수, 권2~3에는 서(書) 442편, 권4에는 잡저 107편, 권5에는 서(序) 99편, 권6~7에는 기(記) 283편, 권8에는 발(跋) 37편, 명(銘) 4편, 찬(贊) 5편, 사(辭) 5편, 혼서(婚書) 1편, 상량문 22편, 축문 11편, 제문 6편, 권9에 비(碑) 57편, 권10~11에는 묘갈명 109편, 권12에는 묘지명 5편, 묘표 52편, 권13~15에 행장 103편, 권16에는 실적(實蹟) 26편, 전(傳) 14편, 부록으로 언행록(言行錄)·가장(家狀)·행장·묘갈명·묘지명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증시(贈詩)와 차운(次韻)한 것이 대다수이다. 성리설에 대한 견해를 표현한 것과 언행을 경계하는 교훈적인 시도 있다. 「차길시은성돈십영(次吉市隱聖敦十詠)」은 효(孝)·우(友)·목(睦)·노인(老人)·상(喪)·장(葬)·기구(飢口) 등 10수로 구성된 시로서, 길성돈의 우애와 청렴한 행위를 칭송하며 교훈으로 삼도록 권면한 것이다. 「무송정가인(撫松亭歌引)」은 오랑캐의 침입으로 세상의 도가 폐해졌다는 중국의 고사에 빗대어, 일본의 침략과 그로 인한 유교적 기풍이 상실되고 있음을 개탄한 것이다. 그밖에 「여우과죽림사(與友過竹林寺)」 등의 기행 시도 여러 수 있다.

서(書)의 「상노사기선생(上蘆沙奇先生)」은 스승인 기정진에게 보낸 편지로, 학문적 성취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도를 바라는 글이다. 「상면암최선생(上勉菴崔先生)」은 1905년경 최익현(崔益鉉)에게 보낸 서신으로, 그의 학덕과 언행을 기리고 자신도 그와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답노순오(答盧順五)」에서는 성리설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데, “『심경(心經)』의 「심학도(心學圖)」에는 본심(本心)이 왼쪽에 있고 양심(良心)은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데, 양심은 곧 본심이므로 두 마음을 나누는 것은 반드시 정(靜)과 동(動)을 생각하기 때문이고, 같이 두는 것은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답이선경(答李宣景)」이나 「답하치구(答河致九)」 등에서도 경서나 사서(史書)에 대한 저자의 해박한 지식을 엿볼 수 있다.

잡저도 서신이 대부분으로, 주로 자신의 제자나 친구에게 언행을 바르게 할 것을 바라는 교훈적 내용의 글이 많다. 서(序)는 문집과 계안(契案)의 서가 많다. 그 가운데 「소의계서(昭義契序)」는 기정진의 고제자인 나도규(羅燾圭)가 죽은 뒤 동문과 제자들이 그의 학행을 사모해 만든 계에 부친 글로서, 유가의 도리를 널리 밝히려고 하였다. 기·발문·비·묘갈명·행장 등을 통해 호남 유림의 동향을 엿볼 수 있고, 한말 기정진 문하생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한계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예진(高禮鎭)

안유경

1875(고종 12)~1952.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다.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수문(秀文), 호는 송천(松川)이다.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출신으로 1875년(고종 12) 11월 24일에 태어났다.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905년 11월에 일제가 강제로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하고 외교권을 박탈하자, 이에 분개하여 형제인 고용진(高龍鎭)·고석진(高石鎭)과 함께 의병에 투신하였다. 을사조약은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일본의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1906년 4월에 최익현이 태인(泰仁)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강학회를 열고, 호서·호남 일대의 유림 인사들을 규합하여 항일운동 단체인 면암의진(勉庵義陣)을 구성할 때 함께 참가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최익현의 독립의군부(獨立義軍部)에서 정훈(政訓)을 담당하여 전국 8도에 의병결기의 격문을 전포하였다. ‘의진’이 순창에 이르렀을 때 관군에 포위되어 싸우려고 하였으나, 최익현이 민족끼리 더 이상 골육상잔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서 항전을 금지하였다. 그러다 순창(淳昌) 귀암사(龜巖寺)에서 크게 패하였는데, 그 때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전주감옥에 투옥되었다가 같은 해 12월에 석방되었다.

1914년 임병찬(林炳瓚)이 대한독립의군부(大韓獨立義軍府)를 결성하고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자 이에 가담하여 서기관(書記官)으로 활약하였다. 대한독립의군부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임병찬이 고종황제의 밀명을 받아 만든 비밀결사단체 조직이다. 전국 의병장과 유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이 단체는 대한제국 때의 왕정 복고주의를 추구하였으며, 전국적인 의병투쟁을 벌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임병찬은 한때 조선총독부 관리에게 한국 침략의 부당성을 통고하고 ‘국권반환요구서’를 수차례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독립의군부는 일제에 의해 사전에 발각되면서 임병찬을 비롯한 지도부가 구속되는 사태로 일단락되었다.

1919년에는 김창숙(金昌淑) 등이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보내는 파리장서(巴里長書)에 호남 유림의 일원으로 서명하는 등 항일 독립투쟁에 앞장섰다. 파리장서는 한국의 유림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1919년 개최된 세계만국평화회의에 보낸

조선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서한이다. 파리장서 호소문은 일본의 방해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당시 파리강화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지는 못했으나, 3.1운동과 함께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천명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뒤 부모의 상으로 귀가 중에 일본군에 체포되어 전주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후 귀향하였다. 대한제국에서는 고예진에게 공적이 많음을 알고 밀칙종삼품(密勅從三品) 통훈대부(通訓大夫)를 명하였다. 저서로는 『송천집(松川集)』이 있다. 1977년 건국포장이 추서되고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지금도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송암리 358번지에는 애국지사 고순진·고예진 선생 추모비(愛國志士高舜鎭高禮鎭先生追慕碑)가 있다. 이것은 한말의 애국지사 고순진(高舜鎭)과 고예진(高禮鎭) 형제의 애국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1986년 5월 5일 건립하였다.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로 장흥 고씨 장령공파 송암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비는 총 2기로 모두 거북모양의 기단 위에 오석 비신을 올리고 이수를 엮은 형태이다. 비 전면에는 각각 ‘만취고선생추모비(晩翠高先生追慕碑)’, ‘송천고선생추모비(松川高先生追慕碑)’라고 새겨져 있다.

참고로 고예진의 형인 고순진은 고예진과 함께 고시청의 장남과 4남으로 이곳 성암리 379번지에서 태어났다. 고순진은 호가 만취(晩翠)이며, 고예진과 마찬가지로 최익현의 문인이다. 1906년 최익현 의거 당시 항일투쟁을 호소하는 격문을 인쇄하여 전국으로 보냈다. 1914년에는 무기와 군량미, 거액의 군자금 등을 독립의군부에 헌납하였고, 1919년에는 대한독립청원서(파리장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1999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고예진의 시문집 『송천집』은 모두 13권 4책으로 신활자본이다. 1963년 친척인 고만상(高萬相)·고좌상(高佐相)·고광은(高光殷) 등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최익현의 손자인 최용식(崔龍植)의 서문과 권말에 고만상·고좌상·고광은 등의 발문이 있다. 전라남도 장성의 변시연가(邊時淵家)에 소장되어 있다.

권1에는 시 500여수, 부(賦) 2편, 표(表) 1편, 권2에는 서(書) 144편, 권3에는 잡저 15편, 권4에는 서(序) 39편, 권5에는 기(記) 44편, 권6에는 발(跋) 6편, 찬(贊) 1편, 축문 6편, 혼서(婚書) 4편, 권7에는 제문 23편, 권8에는 상량문 19편, 권9에는 비문 14편, 묘표 4편, 권10에는 묘갈명 15편, 권11에는 행장 10편, 사장(事狀) 5편, 가장 2편, 전(傳) 5편, 찬장(贊狀) 8편, 권12·13에는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에는 「근차면암선생일옥구호운(謹次勉菴先生日獄口呼韻)」·「탄시색(嘆時色)」·「척확(尺蠖)」 등 폭넓은 제재로 구성된 시가 고루 실려 있다. 서에는 그가 최익현에게 보낸 3편의 「상면암선생(上勉菴先生)」과 그의 아들 최영조(崔永祚)에게 보낸 12편의 「상운재최장(上雲齋崔丈)」을 비롯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가 되는 다수의 편지가 실려 있다. 잡저에는 독립운동사 연구에 참고가 되는 「면암선생병오거의시사실록(勉菴先生丙午舉義時事實錄)」과 그의 실천적 학

문연마에 관한 탐구결과인 「경의문대(經義問對)」 등이 있다.

참고할 만한 문헌으로는 『면암집(勉庵集)』, 『흥성지(興城誌)』, 『벽옹김창숙일대기(壁翁金昌淑一代記)』,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大韓民國獨立有功人物錄)』(국가보훈처, 1997),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등이 있다.

고용즙(高用楫)

안유경

1672년(현종 13)~1735년(영조 11).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본관은 미상(未詳)이며, 자는 제경(濟卿), 호는 죽봉(竹峯)이다. 임피(臨陂) 술산(戌山)의 죽봉에서 출생하였으므로 호를 죽봉이라고 하였다. 할아버지 고이원(高而遠)과 아버지 고필(高泌)은 신독재(慎獨齋) 김집(金集)과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문하에 출입하였다.

고용즙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고 시를 잘 지어 신동으로 불렸으며 문장도 잘 썼으나 과거에는 실패하였다. 이에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김집과 송시열의 문하에서 오직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였으니 성리학에 침잠하고 경서(經書)에 몰두하였다. 북헌(北軒) 김춘택(金春澤)과 교의가 두터웠으며, 이관명(李觀命)·이휘지(李徽之)·민진원(閔鎭遠)·김진상(金鎭商) 등 당대의 명사들과도 교류하였다.

영조(英祖) 초에 상소를 올려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 등의 죄와 탕평책의 부당성을 논하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 1721년부터 1722년에 걸쳐 세자책봉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 일어난 신임사화(辛任士禍)와 관련된 일을 말한다. ‘신임사화’는 신축(辛丑)·임인(壬寅)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옥사이다. 1720년(숙종 46)에 숙종이 죽고 소론의 지지를 받은 경종(景宗)이 33세의 나이로 즉위했는데, 후사가 없었으며 병이 많았다. 김창집(金昌集) 등 노론 4대신은 하루 빨리 경종의 동생인 연잉군(延昞君: 뒤의 영조)을 왕세자로 책봉하자고 주장했다. 당시의 노론 4대신은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영중추부사 이이명(李頤命), 판중추부사 조태채(趙泰采)가 중심이 되었다. 물론 소론측의 반대가 있었지만, 경종은 1721년 8월에 대비 김씨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실현시켰다. 유봉휘 등 소론이 이에 반대했으나, 결국 노론세력의 주장이 관철되어 경종의 이복동생인 영조가 세자로 책봉되었다.

노론측은 더 나아가 10월에 조성복(趙聖復)의 상소를 통해 경종을 대신하여 세제의 대리 청정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발한 조태역, 이광좌, 유봉휘 등 소론세력의 반대에 부딪힌다. 그러던 중 사직(司直) 김일경(金一鏡) 등이 소를 올려 노론이 반역을 도모한다고 고발하여 세제 청정을 상소한 조성복과 이를 강행한 노론 4대신을 파직시켜 유배를 보냈다. 이외에도 다수의 노론측 인물들이 삭직되었고, 소론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즙은 노론의 입장에서

소론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고향의 유림들과 협의하여 스승인 김집이 배양되어 있는 봉암서원(鳳巖書院)에 사액하고, 정읍에 송시열이 배양되어 있는 고암서원(考巖書院)을 창건할 것을 소청하였다. 유고로 『죽봉집』을 남겼다. 고용죽은 고동옥(高東沃)의 할아버지이다.

고용죽의 시문집인 『죽봉집』은 3권 1책으로 석인본이다. 1938년 영모재(永慕齋)에서 간행되었다. 권두에 민병승(閔丙承)·이중명(李重明)·최병심(崔秉心)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후손인 고동화(高東華)·고도상(高道相)·고경동(高京東)·고명환(高明煥) 등의 발문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장서각 도서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1에는 「상토역소환향시음(上討逆疏還鄉時吟)」·「반궁중정음(泮宮中丁吟)」·「서당즉사(書堂卽事)」·「서원회음(書院會吟)」·「취취당(就就堂)」 등 시 209수, 「팔덕선부(八德扇賦)」·「남정부(南征賦)」·「의기부(懿己賦)」·「민기부(悶己賦)」 등 부 4수가 들어있다. 「의기부」는 고용죽의 29세 때인 1700년 상중에 쓴 작품으로 장편이다. 또한 「민기부」에는 상제(喪制)가 된 고용죽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저자는 탐라국(耽羅國) 을나(乙那)의 후예로 45대를 군주, 16대를 신하로 내려온 명문가문으로, 부친은 특히 용모·언행·문장이 뛰어났고 가족이나 사회에 공헌한 바가 많았다. 과거에는 실패하였으나 전원에 뜻을 두어 정자를 짓고 못을 파며 국화와 버들을 심어 은자답게 살아가다가 고용죽이 28세 때인 1699년 9월에 병석에 눕게 되고, 온갖 약에도 효과가 없어 다음 달 10월 25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 뒤에 슬픔이 극에 달하여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고 여러 풍수(風水)를 맞아 묘지를 정하여 다음 해 2월 14일에 안장하는 효자 고용죽의 심정을 그린 작품이다. 그 밖에 지은 년대를 알 수 없는 작품으로 부채의 팔덕(八德)을 읊은 「팔덕선부(八德扇賦)」가 있다.

권2에는 「흥학당서(興學堂序)」·「초당서(草堂序)」·「필묵계서(筆墨契書)」·「봉암서원서(鳳巖書院序)」 등 서 5편, 「취취당기(就就堂記)」의 기 1편, 「봉암서원개기제문(鳳巖書院開基祭文)」의 제문 1편, 「봉암서원중수상량문(鳳巖書院重修上樑文)」의 상량문 1편, 「사직축문(社稷祝文)」 등 축문 10편, 「포계조후경장(褒啓趙候景狀)」의 장 1편, 「토역소(討逆疏)」·「태학소(太學疏)」·「태학공재소회소(太學空齋所懷疏)」·「신독재선생봉암서원청액소(愼獨齋先生鳳巖書院請額疏)」 등 소 11편이 들어있다. 이 중에 「초당서」는 고용죽이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에 쓴 말년의 작품인데, 여기서는 저자가 거처하는 초당의 주위환경을 그린 것이다. 이것은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와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다. 그 밖에 봉암서원에 배향된 스승인 김집의 도학과 연원 등을 그린 「봉암서원개기제문」이 있다.

권3에 부록으로 행장·묘표·만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1887년(고종 24)에 경

연관(經筵官)을 지낸 김락현(金洛鉉)이 행장을 지었다. 소는 스승인 송시열(宋時烈)과 김집(金集)을 사사한 노론의 입장에서 소론의 유봉휘(柳鳳輝)·이광좌(李光佐) 등이 주장한 세제책봉 및 대리청정의 반대에서부터 신임사화에 이르기까지의 사실을 담고 있다. 또 소론 일파가 일으켰던 반란행위를 엄벌에 처할 것을 건의하고 있어, 당쟁이 심화되었던 당시 노론·소론의 갈등과 대립상을 엿보는데 참고자료가 된다.

곽시징(郭始徵)

안유경

1644(인조 22)~1713(숙종 39). 조선 후기의 학자이다.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경숙(敬叔) 또는 지숙(智叔)인데, 처음 경숙이었다가 스승인 송시열에 의해 지숙으로 고쳤다. 대대로 살고 있는 곳은 목천(木川)이며 호는 경한재(景寒齋)이다. 아버지는 사헌부집의(執義)와 지제조(知製敎)를 역임한 곽지흠(郭之欽)이며, 어머니는 안동 김씨로 도사(都事) 김옥(金鑿)의 딸이다. 아버지는 강직하고 청백한 인물로 평판이 높았다.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과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1644년 6월에 서울의 근동(芹洞)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말과 행동이 장중하고 머리가 총명하였다. 성인들보다 더 뛰어난 논리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른들이 질문하면 대답하는 말이 이미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소학(小學)』을 읽고는 모든 일을 그대로 따라 행하려 하였으며, 또한 과거공부는 선비의 뜻을 빼앗는다고 하여 한 차례 나아가 응시하고는 그만두었다. 이때 송준길의 부름을 받아 한양으로 올라가 학문을 배웠으며, 중년 이후에는 한양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을 데리고 다시 충청도 목천으로 내려갔다. 여기에서 송시열을 만나 그로부터 사사(師事)를 받고 평생토록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 송시열의 문하에서 배우고 부지런히 하기를 몸이 야위는 데까지 이르렀으므로 집안사람들이 그만둘 것을 권유하였으나 오히려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송시열을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배우기를 청하며 간혹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일까지 잊었기 때문에 송시열이 매번 그의 학문 좋아함을 칭찬하였다.

1689년(숙종 15)에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과 외재(畏齋) 이단하(李端夏)의 천거로 재릉참봉(齋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환국(己巳換局)이 일어나 남인이 득세하자 벼슬을 그만두었다. 기사환국은 1689년(숙종 15년) 장희빈(張禧嬪) 소생의 아들 윤(昀)을 세자로 삼으려는 숙종에 반대하던 송시열 등 서인이 이를 지지한 남인에 의하여 패배당하고 정권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뀐 일을 말한다. 숙종은 서인이 제기한 원자(元子) 문제를 빌미로 서인의 횡포를 억누르고자 서인을 실각시키는 한편, 남인들을 다시 중용하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송시열이 제주도 유배되자 여러 문인들과 함께 그 무고함을 상소하였고, 송시열이 죽은 뒤에는 태안(泰安)으로 들어가 두문불출하며 학문과 후진 양성에 힘썼다. 1694(숙종 20)년 갑술환국(甲戌換局) 이후 송시열이 신원되자, 고향인 목천으로 돌아와 송시열이 쓴 경한(景寒)으로 편액한 정자 경한정을 세워

도를 강론하는 등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이에 학자들이 다투어 배우기를 청하였으며 한결 같이 스승이 이루어 놓은 학문에 따라 가르쳤다. 바닷가에 있는 후미진 지역에 비로소 학문이 있음을 알게 하였고 사나운 풍속이 따라서 교화되는 것이 많았다. 도를 강론하고 여가에 산수 좋은 데를 거닐며 스스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였다. 때때로 자연을 음미하다가 즐거움이 지극하여 감흥이 일어나면 문득 시와 노래를 지어 그로써 자기의 뜻을 부치기도 하였다. 그가 시와 노래를 지은 까닭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는 단순히 자연을 노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교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시에는 『경한정시가(景寒亭詩歌)』가 있다. 이것은 퇴계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과 율곡의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형식의 영향을 받았다고보다는 시조의 효율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 근심도 잊어버리고, 마음을 맑게 하기도 하며, 욕심도 적게 하기 때문에 ‘배움에 뜻을 둔 자’에게 보탬이 되었다. 즉 시조는 노래 부르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에게 모두 유익하다는 것이다.

1703년(숙종 29년)에 목릉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사직하였으며, 이어서 왕자사부(王子師傅)에 임명되어 왕자 연잉군(延昞君: 영조)을 가르쳤다. 이때부터 연잉군과의 각별한 관계가 형성된다. 연잉군이 등극 후에도 스승인 광시정을 항상 옆두해 두고 있었다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영조는 광시정을 자신의 유일한 스승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승 광시정에 대한 영조의 사랑이 그 후손에게까지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뒤에 1708년(숙종 34)에 빙고별제(氷庫別提)가 되었으며, 바로 이인도찰방(利仁道察訪)에 제수되었다. 이 시기 역원의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인도찰방으로 있을 때 임금에게 『소학』을 익숙하게 읽고 아울러 『격몽요결(擊蒙要訣)』을 보도록 청하였다. 마음을 다하여 임금을 공경하기를 관직에서 떠났다고 하여 거르지 않았으며, 심지어 병이 났을 때도 근심하고 은혜를 다할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 임금의 덕과 기질이 비록 타고난 것일지라도 근원에 물을 대고 깊게 한 것은 또한 광시정에게서 힘을 얻은 것이 많았으니, 그 쌓은 정성과 권면하고 인도한 것은 실제로 사부들 가운데서 제일이라고 하겠다.

광시정은 품성이 이미 어질고 후덕하며 학문은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일찍이 스스로 가르침에 따라 잠시라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병이 들어 사사로이 있을 때에도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스스로 잘난 체 뽐내는 것을 병으로 여겼으며, 자신의 몸가짐은 반드시 근신하여 아무리 이익과 손해가 번갈아 변하여도 본래의 뜻을 바꾸지 않았으며, 마음을 다스리기를 진실로 엄하게 하였다. 부모를 섬김에는 아침 문안과 잠자리 보살피기를 예에 맞게 하였고, 만형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이 하였다. 아버지가 병이 들자 손가락에서 피를 내어 먹이

기도 하고, 변을 맛보기도 하였다. 상(喪)을 당해서는 3년 동안 소금이 없이 죽을 먹었으며, 비록 상을 마쳤어도 묘소를 지날 적이면 반드시 곡하였다. 특히 예서(禮書)를 깊이 연구하였으며 책을 읽다가 의심 가는 곳이 있으면 책을 덮고 깊이 생각하여 의심나는 글이나 바뀐 예절은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1710년(숙종 36) 이인도찰방의 임기를 마치고 신재(愼齋) 김집(金集)이 놀던 공주의 둔촌으로 옮겨 살던 중 1713(숙종 39) 정월 22일에 죽으니 향년이 70세다.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다. 처음에는 공주에 장사지냈다가 목천(木川)의 선영 아래 곤향(坤向)의 산록으로 다시 장사지냈다.

참고할만한 문헌으로는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숙종실록(肅宗實錄)』 등이 있다.

구시경(具時經)

안유경

1637년(인조 14)~1699(숙종 25).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능성(綾城). 호는 독락재(獨樂齋), 자는 제백(濟伯)이다. 구시경의 아버지 구몽협(具夢協)이 1636년 병자호란 때 겨울 해주로 피난하였다가 이듬해 정월 그를 낳았다. 어려서부터 특이하여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멈추지 않다가도 문자를 보여주면 눈을 뜨고 좋은 기색을 보여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고 한다. 11세에 처음 학문을 시작하여 한시도 게으르지 않아 해가 갈수록 학문이 크게 나아졌으며, 스승 없이도 스스로 깨우친 바가 많아 보는 사람들이 감탄하였다. 부친의 친우인 한필구(韓必久)가 그의 자질을 보고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도록 하였으며, 그가 안악(安岳)의 수령으로 나갔을 때 구시경과 동행하였다. 15세 되던 1651년 수년 동안 그를 지켜보던 한필구가 뛰어난 재주를 아껴 일가인 한여태(韓如泰)의 딸로 배필을 삼게 하였다. 이후 최유연(崔有淵)이라는 문장가에게 배우다가 16세에 당시 노론의 영수이자 주자학의 대가인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스승으로 섬기며 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이후 30여 년간이나 송시열의 가르침을 받아 학문에 정진하였다. 이로부터 구시경은 문인의 구습을 버리고 성리학에 전념하였다. 당시 조근(趙根), 송상민(宋尙敏), 이담(李檀), 윤명우(尹明遇) 등과 교류하였으며, 1675년 1월 송시열이 예송(禮訟) 문제로 덕원에 유배되자 따라가 모시었다.

예송논쟁은 효종과 효종비 인선왕후에 대한 계모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둘러싸고 현종, 숙종대에 발생한 서인과 남인간의 논쟁이다. 조선 후기에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1659년 효종의 승하 시와 1674년 효종의 왕비인 인선왕후의 승하 시에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전자가 기해예송(1차)이고 후자가 갑인예송(2차)이다. 서인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1년설과 9개월설을 주장하였고, 남인은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3년설과 1년설을 각각 주장하여 대립하였다. 당초 허목, 윤희와 송시열의 예론대결로 흘러가던 중 윤선도가 송시열은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예송은 토론에서 이념 대립으로 격화된다.

이처럼 서인과 반대 세력인 남인 사이에서 예송 논쟁이 벌어지자 은둔생활을 하며 학문과 저술에 힘썼다. 그러다가 1679년(숙종 5) 예송 논쟁에 연루되어 강원도 이천으로 유배되었다. 유배 생활에서 풀려난 후 산릉감동관(山陵監董官),

홍성판관(洪城判官) 등의 여러 벼슬을 거쳐 1696년(숙종 22) 연천현감(漣川縣監)을 지냈다. 1699년(숙종 25) 임지인 연천에서 죽었다. 저서로는 『독락재유고(獨樂齋遺稿)』가 있다.

구시경의 시문집 『독락재유고』는 5권 2책으로 신연활자본이다. 구시경이 사망한 후 200여년이 지난 1886년(고종 23)에 그의 7대손 구양서(具陽書) 등이 구시경의 유문(遺文)을 정리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송근수(宋近洙)의 서문과 권말에 구양서와 8세손 구완회(具完會)의 발문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일부를 필사한 『독락재문집』이 규장각 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규장각에 전하는 『독락재문집』은 1886년에 송근수가 쓴 서문이 권두에 실려 있어 1886년에 간행된 초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당시 간행된 문집의 전체는 아니며 필사 과정에서 일부만이 초록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유는 구시경의 유문(遺文)을 정리하였다는 서문의 문집 편간 경위와는 달리 저자 자신의 글은 본 문집에 단 한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고, 모두 친구나 후배들과 같은 남의 글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권두의 1886년(고종 23)에 송근수가 쓴 서문, 1715년에 완산(完山) 최방언(崔邦彦)이 쓴 독락재공행장(獨樂齋公行狀), 1721년(경종 1)에 정호(鄭澐)가 쓴 「한성부판관구공묘갈명(漢城府判官具公墓碣銘)」을 제외하면 모두 만사(輓詞), 제문(祭文)들 뿐이며 마지막에 청담첩(淸潭帖)을 부록하였다. 송시열이 청담동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의 시문과 송시열의 글씨를 받아 묶은 청담첩을 수록하였다. 본 필사본 문집에는 송시열의 글씨는 없이 제목뿐이며, 여러 사람들의 시문들과 함께 구시경의 집에 전하던 청담첩을 모사하게 된 경위를 적은 권섭(權燮)의 지문이 부록되어 있다.

권1에는 서(書) 2편, 기 1편, 설 3편, 어록 1편, 잡저 2편, 제문 2편, 권2~5는 부록으로 세계(世系)·연보·행장·묘갈명·시장(諡狀) 각 1편, 서독(書牘) 80편, 현송당기(絃誦唐記) 1편, 만장 54편, 제문 5편, 시 46수, 제청담시첩후(題淸潭詩帖後) 4편, 가사서(家史序)·가사발(家史跋)·제독락재구공가장우암선생수서후(題獨樂齋具公家藏尤庵先生手書後)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현송당기’는 1697년에 구시경이 연천현감으로 있을 때 지은 현송당에 대하여 정상룡(鄭祥龍)이 사실을 정리하여 지은 글로써, 구시경이 연천에서 현송당을 세워 후생들을 교도한 공적을 찬양한 내용이다.

서(書)에는 한정기(韓挺箕)와 장례에 관하여 논설한 내용이 들어있고, 설의 「예설(禮說)」에는 당시 일어났던 예론논쟁에서 송시열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잡저 중 「기미화변사실(己未禍變事實)」에는 이천 땅으로 유배된 사건의 전말을 일기식으로 기술하였다. 이밖에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계통의 사람들과 사우(師友)·문인관계를 나타내는 기록이 많다.

송시열이 직접 써주었다는 현판(懸板) 명과 시 1수, 송시열이 지은 「구제백서

산정사차주손운(具濟伯西山精舍次疇孫韻)」, 이속(李涑)이 지은 「복차우재선생청담동운(伏次尤齋先生淸潭洞韻)」, 조정만(趙正萬)이 지은 「경제청담시첩(敬題淸潭詩帖)」·「우차우재운(又次尤齋韻)」, 이병연(李秉淵)이 지은 「차운 경제청담첩(次韻 敬題淸潭帖)」, 이병성(李秉成)·최방언(崔邦彦)·김시보(金時保)·김창집(金昌集)·신정하(申靖夏)·김상리(金相履)·서응순(徐應淳)·송근수(宋近洙) 등이 지은 시, 권말에 안동 권섭(權燮)이 1697년에 쓴 「제청담첩후(題淸潭帖後)」가 기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집은 1909년에 구양서(具陽書) 등이 간행한 구시경의 『독악재유고』의 중간부분만 필사하여 놓은 것이라고 보겠다.

기우만(奇宇萬)

안유경

1846(헌종 12)~1916. 조선 말기의 학자이자 의병장이다.

본관은 행주(幸州)로 지금의 경기도 고양이다. 자는 회일(會一), 호는 송사(松沙)이며 또는 학정거사(學靜居士)라고도 부른다. 1846년 전라도 장성 탁곡(卓谷)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이며, 아버지는 기만연(奇晩衍), 어머니는 이기성(李耆成)의 딸이다. 기씨가 장성에 들어와 산 것은 중종 연간 기묘사화(己卯土禍) 때이다. 기묘 사림의 한 사람이었던 기준(奇遵)의 둘째 형인 기원(奇遠)이 기묘사화를 피해 장성으로 옮겨 온 이후에 대대로 살았다.

기우만은 8세 때 할아버지인 기정진을 모시고 하사(下沙)로 이사했고, 이후 기정진이 죽을 때까지 줄곧 옆에서 모셨다. 기정진의 강학활동을 보좌하면서 집안 일까지 챙겼다. 34세 때 기정진이 죽자 호남의 유림들은 기우만을 종장으로 추대했고 기우만을 기정진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기우만은 조선의 개국에서부터 격변기에 살면서 할아버지 기정진의 위정척사 사상을 현실대응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각 읍에 통고하여 규탄하기를 촉구했고, 1896년에는 51세의 나이로 장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옮겨가자 ‘호랑이를 풀어서 보호하고자 하는 꼴’이라면서 외세에 의탁하는 일이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종묘사직에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선의 멸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도 하였다. 의병을 일으켜 나주와 광주로 갔으나 신기선(申箕善)이 선유사로 내려왔으므로 의병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해산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은 빈자리에 앉게 되었다. 우리의 삶은 허공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땅 위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땅이 견양(犬羊)의 차지가 되었다’고 분노했다. 을사 5적에 대해 ‘이 무리들은 선왕으로부터 받은 강토를 사사롭게 적에게 넘긴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처단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1906년 호남 사람들을 곡성에 모이게 하고 을사 5적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를 추진하였다. 이후 을사 5적을 암살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일본 경찰에 잡혀가 광주, 영광, 서울 등의 감옥에 갇혀 심문을 받았다.

1910년에 한일합방 소식을 듣고서는 나라가 망한 신하는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해진 옷으로 바뀌 입고 죽림 속에 칩거하였다. 1911년 일본인들이 각 지역의 명망 있는 유림들에게 은사금을 주었는데, 단호하게 거절

하여 일본의 침략 야욕에 항거하는 뜻을 보였다. 기우만은 조선의 신하로 살기를 맹세했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 후 방장산에 들어가 은거하다가 1916년 남원의 사촌에서 별세하였다.

기우만은 인생 후반기에 외세를 배격하고 적극적인 항일활동을 하였다. 개화기 기간 동안 호남의 의병들은 두 차례에 걸쳐 크게 일어났다. 을미의병은 친일 개화당 정권에 대한 비판이었고, 병신년 의병은 을사조약 체결 이후 친일 매국 세력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 두 번의 의병활동에서 기우만이 지도자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의 의병활동은 반개화, 반침략적 투쟁이며 조선 왕권과 국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근왕(勤王)적 성격이 강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호남 의병활동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기우만은 조선이 중화(中華)의 맥을 이었다고 하여 조선의 문화, 제도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그리고 서양의 사상, 문물에 대해서는 샅된 것, 오랑캐의 것으로 규정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서양의 책을 사서 읽고 천주교가 성행한다는 말을 듣고는 ‘신주(神州)가 무너져 없어진 이후로 한 줄기의 화맥(華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동쪽의 중화가 된지 3백년인데 지금 모두 없어졌다’라고 한탄하였다. 화이(華夷)구분과 소중화 의식은 위정척사 운동의 이념적 기반이었다. 소중화 자부심은 갑오개혁 개화에 대한 비판 정신의 뿌리였다.

당시 개화파들은 조선의 전통을 구시대적인 폐습으로 간주하여 개혁할 대상으로 여겼다. 서양의 사상, 문화, 문물을 개화 기준으로 하여 정치부터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서양식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우만은 서양과 일본을 오랑캐로 보았고 그들의 문화, 문물을 오랑캐의 것으로 간주하였으므로 개화파의 개화란 중화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중화를 변질시켜 오랑캐로 만드는 일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정(正)-바름’이 아니라 ‘사(邪)-거짓’된 개화로 개화라는 이름만 훔쳐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일로 규정하였다. 샅되고 거짓스런 상황을 바름으로 돌리기 위해 도학의 맥을 강조하며 윤리도덕의 회복에 힘썼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석채(釋菜)와 향음주례를 실시하기도 했다.

기우만이 주장한 부정척사(扶正斥邪)는 기정진의 사상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바른 학문을 잡게 되면 거짓된 것들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데, 거짓이 세상에 번성한 것은 정학(正學)의 도가 밝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상에서 향음주례나 석채 등을 통해 윤리 도덕적 기강을 회복하고 성현의 도맥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곧 중화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문화야 말로 올바르고 개화된 것이며 정학이 아직 건재함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학문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우만은 호남 유림의 종장이라는 위치에 있었으나 따로 학설을 세우지 않았다. 스승인 기정진이 할아버지였으므로 집안 어른의 학설에 대해 부가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는 일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기정진의 강학활동을 돕느라 제대로 배우는 일도 어려웠다. 기정진이 제자들에게 강학하는 내용을 곁에서 듣고 사색하여 학설을 터득했을 뿐이고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연구하거나 스승과 토론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승의 학설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학파와의 학문적 토론은 기정진 제자들에게 일임하였다. 또한 기정진의 제자나 친우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성리학과 관련한 전문 저술이 없다. 평소 유교 윤리를 강조했던 만큼 삼강(三綱)에 가까운 행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는데 『호남의사열전(湖南義士列傳)』도 그런 의도에서 저술하였다. 그의 문집으로 『송사집』과 『송사선생문집습유』가 있다. 정재규(鄭載圭)·조성가(趙性家)·정의림(鄭義林) 등과 교유하였으며,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송사선생문집』은 조선 말기 학자이며 의병장인 기우만의 문집이다. 문인인 양회갑(梁會甲)의 주도로 편찬하여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1930년에 착수되어 1931년에 간행되었다. 현재 규장각과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집은 목록(目錄) 2권, 원집(原集) 50권, 속(續) 2권 합 26책으로서, 목록의 뒤에 정오표(正誤表)가 수록되어 있고, 서문이나 발문은 없으며, 묘도문(墓道文)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권1에는 시(詩) 192제, 권2에는 소(疏) 5편, 권3~10에는 서(書) 1,025편, 권11~12에는 잡저 176편, 권13~16에는 서(序) 285편, 권17~21에는 기(記) 420편, 권22에는 발(跋) 116편, 권24에는 신도비문(神道碑銘) 16편, 권25에는 비(碑) 51편, 권26~38에는 묘갈명(墓碣銘) 583편, 권41~43에는 묘표(墓表) 162편, 권44~48에는 행장(行狀) 104편, 권49에는 유사(遺事) 34편, 권50에는 전(傳) 36편이 수록되어 있다.

김교준(金敎俊)

안유경

1883년(고종 20)~1944. 조선 말기 일제 강점기의 유학자이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경로(敬魯), 호는 경암(敬菴)이다. 선조 때 형조참의 예문관을 지낸 만취(晩翠) 김위(金偉)의 후손이다. 어머니는 황씨(黃氏)이다. 1883년(고종 20) 태어나서 지리산 바래봉 아래에서 살았는데, 어릴 적부터 성격이 강경하면서도 순박하고 진실하였으며, 특히 인자함이 남들보다 뛰어났다고 한다.

어려서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에게 글을 배웠다. 송병선이 순국하자, 다시 간재(良齋) 전우(田愚)를 사사하면서 그의 성리학 이론인 ‘성사심제(性師心弟)’를 탐구하였다. ‘성사심제’란 성(性)을 스승으로 삼고 심(心)은 제자가 되어 열심히 성을 배우라는 유학의 형이상학적 이론이다. 여기서 ‘성’은 하늘이 사람마다 부여하여 준 것으로 순선(純善)하고 것이므로 나에게 부여된 순선한 성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다. ‘심’은 물질을 보면 발동하는 것으로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으로, 물질을 보면 욕심이 발동하여 사심이 생기는 원인이다. 비유하면 동네 길에서 우연히 일 만금을 주었는데, 갑자기 사심이 발생하여 자기 주머니에 숨겼다. 이때 성이 보고 심을 꾸짖고 꾸짖어 주인을 찾아주라고 한다. 이처럼 심이 성의 명령을 따르고 배우는 것이 ‘성사심제’의 이론이다. 성이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므로 성을 스승으로 삼고 심은 제자가 되어 열심히 성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성사심제’의 철학이다. 다시 말하면 심은 성을 근본으로 삼아 선도 있고 악도 있는 심을 순선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은 순선무악(純善無惡)하므로 성은 높고 심은 선도 있고 악도 있으므로 심은 낮으니 이로써 성존심비(性尊心卑)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성사심제’의 이론을 전우에게 질의한 내용들이 『경암집』에 들어있다.

전우 사후에는 문집 간행으로 빚어진 영·호남의 시비에 대의를 밝혀 논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송시열의 『송자대전(宋子大全)』 판각과 스승의 묘소 석물에 대해 거금을 출연하기도 하였다. 이후 순창 남원 백전촌(栢田村)과 오산의 농세재(龔世齋)에서 강학하였다. 글을 잘 써 8세조와 증조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장(家狀)을 썼으며, 한말 의병장이었던 박윤식(朴潤植)의 행장을 쓰기도 하였다. 성인의 도를 받들고 지키면서 부정척사(扶正斥邪)로 일생을 마쳤다. 1944년 세상을 떠났으며,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에 위패를 모신 오산사(鰲山祠)가

있다. 저술로는 『경암집』이 있다.

또한 김교준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1909년 세웠던 농세재(龔世齋)를 1941년 중건하면서 오산서원이라고 이름 붙였다. 김교준은 일찍이 송병선에게 수학한 이후, 1907년 오산에 경재(敬齋)를 신축하여 학문을 닦았다. 이듬해에는 전우에게 나아가 학문에 전념하며 평생 스승으로 모셨다. 1943년 김교준이 세상을 떠나자, 문인과 고향의 유생들이 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하여 1972년 오산서원을 오산사(鰲山祠)로 이름을 바꾸고 그곳에 영정을 모셨다. 그 뒤 1984년 사당을 신축하여 경현사(景賢祠)로 이름하고 오산사에 있던 김교준을 이안하였다. 1994년 오산사 건물을 원래대로 오산서원으로 환원하고 『오산서원지(鰲山書院誌)』를 발간하였다.

1994년 김교준의 문인과 순창의 유림 및 후손이 중심이 된 오산서원지 편집위원회는 전우와 김교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오산서원지』를 발간하여 운영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권 1책으로 총 86장이다. 서문 앞에는 경현사와 내삼문 사진이 있고, 오산서원과 농세재 사진이 있으며, 전우와 김교준의 영정이 있다. 서문은 원종복(元鍾復)이 지은 것이다. 권1은 위치, 건물, 건사사실(建祠事實), 향사일(享祀日)을 비롯하여 봉안문(奉安文)과 축문(祝文), 주자백록동규(朱子白鹿洞規), 남전여씨향약(藍田呂氏鄉約), 향약절목(鄉約節目), 상읍례도(相揖禮圖), 강석도(講席圖), 토지목록(土地目錄) 등이 있다. 권2는 전우의 문집과 김교준의 문집에서 뽑았는데 전우의 주요 글로 「전제임선생신도비명(全齋任先生神道碑銘)」·「성사심제변변(性師心弟辨辨)」·「성존심비적거(性尊心卑的據)」·「성사심제독계어(性師心弟獨契語)」 등이 있고, 김교준의 글로는 「상연재송선생(上淵齋宋先生)」·「상간재전선생(上良齋田先生)」·「농세재기(龔世齋記)」 등이 있다. 권2에 수록된 오산사기(鰲山祠記)·원임안(院任案)·제관록(祭官錄)·부의계원좌목(扶義契員座目) 등은 오산사의 내역과 서원과 관계된 인물을 수록하고 있어 서원 운영을 알 수 있다.

『경암집』은 일제 강점기의 문인 김교준의 시문집이다. 모두 9권 6책으로 석인본이다. 1961년 오구영(吳龜泳)·이도형(李道衡)·황갑주(黃甲周) 등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김교준은 송병선과 전우의 문인으로 학문적 재능이 뛰어나 많은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다. 『경암집』은 김교준이 죽고 20여 년 뒤인 1961년에 제자인 황갑주(黃甲周)·오구영(吳龜泳) 등이 계를 만들어 자금을 마련하여 비석도 세우고 문집도 간행하게 되었다. 권두에 이병은(李炳殷)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황갑주의 발문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1~3에는 서(書) 160편, 권4에는 잡저 26편이 들어있다. 권5에는 서(序) 14편, 기 28편, 발 6편, 상량문 2편, 책(策) 1편, 잠(箴) 2편, 축문 2편, 제문 9편, 애사 2편이 있으며, 권6에는 행장 8편, 비기 6편, 묘갈명 1편, 묘표 2편이 있다. 권

7에는 시 423수, 부(賦) 1편이 있고, 권8에는 만록 100편, 권9에는 부록으로 영(詠) 9편, 행장·묘갈명·묘지명·묘표 각 1편, 제문 2편, 만(挽) 14편, 문인록(門人錄)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書)는 대개 스승·동료·친척 등과 주고받은 것으로, 안부 또는 학문적인 내용을 문답한 것이다. 송병순에게 보낸 서에서는 친영례(親迎禮)·상례·문상·복례(服禮)·의관·부녀복(婦女服)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잡저 가운데 「독을 농간삼선생유서록(讀栗農良三先生遺書錄)」에서는 주로 심성론에 관한 이이(李珣)와 김창협(金昌協)의 학설들을 비교해 기술하였다. 그밖에 고구려의 밀우(密友)와 세우(細友)의 충절, 백제의 도미(都彌) 아내의 정절, 신라 이차돈(異次頓)의 죽음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책 가운데 「삼강책(三綱策)」에서는 군신·부자·부부간의 자세를 고대의 사례를 인용해 자세히 논술하고 있는데, 특히 군신간의 충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시는 뛰어난 시재를 선정해 맑고 순수한 생각을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 중에서 「화양동십경(華陽洞十景)」은 화양동의 명승을 노래한 것으로, 저자의 초일한 정서가 잘 나타나 있다. 「독서칠절(讀書七絶)」·「칠음(七吟)」 등은 학문과 사상에 관한 심경을 읊은 것으로 그 내용이 진지하다. 만록 가운데 「청수만록(淸水漫錄)」에서는 조선 태조의 왕위계승에 대한 오관으로 인해 왕자의 난 등이 일어났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정조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사건과 봉당의 발생동기·과정·폐단 등 역사적인 여러 사실들에 관해 기술하고 있어 좋은 자료가 된다.

『경암집』에는 서간문이 많이 수록되었는데, 대부분의 주제가 성리학적과 연관된 것으로, 특히 스승인 전주에게 ‘성사심제(性師心弟)’의 이론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의 걸출한 문인들과 토론하고 응답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다. 『경암집』은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점기의 도학과 문학의 사조를 이해하고, 아울러 전우의 사상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김녹휴(金祿休)

안유경

1827(순조 27)~1899. 조선 후기의 유학자이다.

본관은 울산(蔚山), 자는 치경(稹敬), 호는 신호(莘湖)이다. 1827년(순조 27) 지금의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月坪里)에서 태어났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후손이다. 조부는 김홍조(金弘祖)이고, 아버지는 김방묵(金邦默)이며, 어머니는 전의 이씨(全義李氏) 이정권(李貞權)의 딸이다. 연일 정씨(延日鄭氏) 정재영(鄭在瑩)의 딸과 결혼하였다.

1835년(헌종 1) 을미(乙未)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 3등 26위로 합격하였다. 어려서는 둘째 형인 김경휴(金景休)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며, 15세 되던 해부터 조선시대 성리학의 6대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6대가로는 이황(李滉)·이이(李珥)·이진상(李震相)·임성주(任聖周)·서경덕(徐敬德)·기정진을 꼽는다. 그때 기정진은 하사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곳과 가까이 가기 위해 황룡강 건너에 있는 황룡면 신호리(莘湖里)로 이주하였다. 그의 문집은 무슨 연유인지 1981년에야 간행되었으며, 1책의 분량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성리학에 대한 저술도 찾아보기 힘들고, 그의 누정활동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산천 유람하기를 좋아하여 명승지를 두루 여행하였으며, 몇 곳에는 정사(亭榭)를 지어두고 동지들과 함께 즐겼다고 행장에 나온다. 사실 그의 문집에는 상외정과 문향정 관련 시가 보인다. 상외정은 1882년에 고창군 부안면 상암리 상포(象浦)에 세웠고, 문향정은 1892년 무렵에 신호리와 가까운 곳에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누정들은 사라지고 없다. 상외정에 대한 기문은 주인 김녹휴가 지은 것이 남아 있어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용이하다. 그가 지은 기문에 의하면, 김녹휴가 변산에 거처한 것은 1878년부터인 것으로 나오는데, 과거에 대한 마음을 접고 난 뒤의 일로 추정된다. 상외정의 기둥에 달았을 법한 주련시가 그의 문집에 남아있는데 6언시 16구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그가 지은 상외정의 원운시를 살펴보자.

만년의 정자를 바닷가에 지어놓으니(晩暮一亭隔海灣)

백년의 천석이 모두 서로 관여하네(百年泉石渾相關)

세속에선 도리어 물외의 경치 거둬들이고(象裏還收象外景)

바다 끝은 해중산을 함께 얻었네(海窮兼得海中山)

이것은 김녹휴가 지은 시로 바다가 굽어보이는 해안에 정자를 지어 놓으니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선경을 이루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먼 바다에 배들이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모습은 세속을 초탈한 한가로움이 묻어난다. 정자 주변의 경관과 작자 자신의 심경을 문학적으로 잘 승화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위 시와 같은 운을 가지고 차운한 시로는 조성가(趙性家)와 오계수(吳繼洙)의 작품이 각각 문집에 남아있는데 모두 뛰어난 시이다. 이 시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상외정은 강학의 공간보다는 다정한 벗들과 함께 경관을 감상하거나 소요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녹휴는 만년에 장성으로 돌아와 자신이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문향정을 경영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강학활동도 함께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성가가 지은 「문향정기」가 남아 있는데, 1892년에 지은 것이다. 그 내용에서 ‘문향정’이라고 이름붙인 뜻과 세워진 위치를 알 수 있다. 조성가의 「문향정기」에 의하면, 집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언덕에 새 정자를 짓고, 그 아래에는 연못을 팠으며, 연꽃도 가득히 심었음을 알 수 있다. 군자를 상징하는 연꽃은 주돈이의 애련설 이후 많은 선비들의 사랑을 받으며, 연못에 심어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다시 김녹휴의 문향정의 시를 살펴보자.

새벽녘 샘물소리 현근(玄根)을 정화하고(五更泉響玄根淨)

반이랑 못 물은 거울처럼 고요하네(半畝潭心鏡水安)

연하(煙霞)가 가까우니 경영하기 족하고(煙霞密邇經營足)

때때로 읊조리는 소리 들리니 문득 마음이 곧추서네(時聽啣唔便做官)

문향정은 마음을 맑게 하고 내면을 관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상외정의 시가 선경과 같은 자연을 읊은 것이라면, 문향정의 시는 자신을 수양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자연과 경물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곧추세우고 있다. 문향정 시에 대해서는 기홍연의 문집에 「문향정」 2수가 있고 조성가의 문집에 「문향정즉사(聞香亭卽事)」와 「문향정연화연구(聞香亭蓮花聯句)」가 있는데, 운이 각각 다른 시이다. 「문향정연화연구」는 5언절구 6수로 조성가·김녹휴·기홍연·이정서(李鼎緒) 네 사람이 문향정의 연꽃을 대상으로 번갈아가며 지은 시이다. 이들은 자주 주변의 정자를 찾아다니며 연구로 시를 짓곤 한 시우(詩友)들이다. 특히 조성가는 김녹휴 누정의 주요 작가로서 그 공간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김녹휴의 누정은 비록 많은 사람들의 왕래는 없었지만 다정한 벗들의 좋은 교유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77년(고종 14) 학행으로 선공가감역(繕工假監役)이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

왔다. 조성가(趙性家)·이응진(李應辰)·조의곤(曹毅坤)·김평묵(金平默) 등과 교류하였다. 저서로는 『신희집(莘湖集)』이 있으며, 기정진·조성가 등과 함께 장성의 고산서원(高山書院)에 배향되었다. 고산서원은 1982년 전라남도 기념물 제63호로 지정되어 있다.

『신희집』은 조선 말기의 학자인 김녹휴의 시문집이다. 모두 3권 1책으로 석인본이다. 1981년 증손 정중(鼎中)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는데, 권두에 김영한(金穉漢)의 서문과 권말에 안중선(安鍾宣)의 발문이 있다. 전라남도 장성의 변시연가(邊時淵家)에 있다.

권1에는 시(詩) 200여 수, 권2에는 서(書) 58편, 서(序) 1편, 기(記) 6편, 발(跋) 4편, 상량문 1편, 제문 4편, 묘지명 1편, 행장 3편, 권3에는 부록으로 제문(祭文)·만사(挽事)·가장(家狀)·행장(行狀)·묘갈명(墓碣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에는 연작으로 된 「호상십영(湖上十詠)」·「석수암단오회(石水菴端午會)」 등과 서정시 「파초(芭蕉)」·「주망(蛛網)」·「현조(玄鳥)」 등을 비롯하여 황병중(黃炳中)·김류(金瀏) 등을 대상으로 지은 증여시가 있고, 그밖에 금강산과 내장산 등을 여행하면서 지은 다수의 유람시가 실려 있다.

서(書)는 심기택(沈琦澤)·조성가(趙性家)·채상필(蔡相弼) 등과 주고받은 것으로, 그 가운데 「답이직지사(答李直指使)」는 1898년(광무 2) 직지사 이승욱(李承旭)에게 종사(宗事)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한 편지이고, 조성가에게 보낸 「답조직교(答趙直教)」·「여조직교(與趙直教)」 등 10여 편의 편지는 2년 전에 일어난 동학란을 비롯하여 민비시해사건과 단발령 등에 항거하여 일어난 의병운동의 단편적 상황 설명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밖에 「남원진씨족보서(南原晉氏族譜序)」와 1885년 이상규(李庠珪)가 강진현감에 재임하면서 수인산성 남문의 비각(碑閣)을 수리한 사실을 기록한 「수인산성남문중수기(修仁山城南門重修記)」, 스승 기정진과 기양연(奇陽衍)을 대상으로 지은 제문 등이 실려 있다.

참고할만한 문헌으로는 『신희집』, 『유학사상-연보집성』, 『광주고전국역총서』, 『전남향토문화백과사전』 등이 있다.

김사우(金思禹)

안유경

1857(철종 8)~1907. 조선 후기의 한학자이다.

본관은 안동(安洞)이며, 자는 인부(仁父), 호는 용암(勇菴)이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리(主城里) 인곡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김호벽(金好璧)이다.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학문이 뛰어나 향리에서 후학들에게 한문을 가르쳤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 체결 이후에 통분을 금하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다. 효학(孝學)을 겸비한 학자로서 당시 학계에 명망이 높았다. 간재의 학문은 스승인 임헌회(任憲晦)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임헌회는 홍직필(洪直弼)의 문인으로서 홍직필이 이재(李縉)의 문인에게서 학문을 닦았다. 스승인 전우는 자신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그 잘못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김창협(金昌協)에게서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농암사칠의의(農巖四七疑義)』를 지어서 그 불합리함을 지적하였고, 기정진(奇正鎭)의 「외필(猥筆)」을 반박하는 「외필변(猥筆辨)」을 썼다. 또한 이항로(李恒老)에게는 「화서아언의의(華西雅言疑義)」로 반박하였고, 이진상(李震相)에게는 「이씨심설조변(李氏心說條辨)」으로 반박하였다. 또한 의리정신을 숭상하고 조선조의 조광조(趙光祖)·이황(李滉)·이이(李珥)·김장생(金長生)·송시열(宋時烈)을 동방의 오현(五賢)이라고 칭하였다. 묘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리(主城里)에 있으며, 저서로는 『용암유고(勇菴遺稿)』 3권이 있다.

『용암유고』는 조선 말기의 학자 김사우의 시문집이다. 모두 7권 3책으로 활자본이다. 1984년에 김사우의 손자 김덕회(金德會)·김명회(金明會) 등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서문과 발문은 모두 김세기(金世基)가 썼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전북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1~3에는 서(書) 202편, 권4에는 잡저 64편, 권5·6에는 잡지(雜識)로 경설(經說) 7편, 권7에는 서(序) 7편, 기(記) 3편, 명(銘) 1편, 발(跋) 1편, 제문 10편, 시 81수, 부록으로 행장·행장발(行狀跋)·묘갈·제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書) 중의 「상간재선생(上良齋先生)」·「답전선생(答田先生)」 등은 대부분 학문에 관해 토론한 글이다. 심성(心性)과 학문, 주기(主氣)와 허령심(虛靈心), 만물일체(萬物一體)와 이기(理氣), 체발(剃髮)과 의리(義理), 달덕(達德)과 이심(理心), 성사심제(性師心弟), 인심과 도심 등 성리학 전반에 걸쳐 논의하고 있다. 「사문

문답(師門問答)」은 지각과 마음, 각식(覺識)과 심지(心智), 지각과 성(性), 기정진의 견해 등을 다루고 있어, 당시 전우학파의 주기적 입장을 살필 수 있다.

잡저의 「명도식인편설(明道識仁篇說)」·「생지위성주설(生之謂性註說)」·「용력어인설(用力於仁說)」·「대학정심설(大學正心說)」·「달덕설(達德說)」·「취정록(就正錄)」 등에서는 선현의 학설을 훈고(訓誥)하여 이기의 문제를 다루었다. 「추담별집부록(秋潭別集附錄)」은 전우가 저자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시의(時義)에 대해 써 보낸 글들을 모은 것이다. 창의(倡義)와 도학(道學)의 문제를 논변한 내용으로, 전우학파의 처세와 갈등을 고찰할 수 있다.

잡지에서는 『중용』과 사서(四書)의 의의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시 가운데 「유화양구곡운(遊華陽九曲韻)」·「덕산구곡(德山九曲)」·「십이난화(十二蘭畫)」·「십송화(十松畫)」 등은 도학자의 심성 수양을 의탁한 내용으로 주목된다.

김상현(金尙鉉)

안유경

1811(순조 11)~1890(고종 27).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위사(渭師), 호는 경대(經臺) 또는 노헌(魯軒)이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9대손이며, 김상악(金相岳)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김기진(金箕晉)이고, 아버지는 김재곤(金在崑)이며, 어머니 풍양 조씨(豐壤趙氏)는 유경주(兪擎柱)의 딸이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연천(淵泉) 홍석주(洪奭周), 대산(臺山) 김매순(金邁淳)의 문인이다.

특히 김매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스승인 김매순은 본관이 안동(安東). 자는 덕수(德叟), 호는 대산(臺山)으로 1795년(정조 19)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사인을 거쳐 초계문신(抄啓文臣)이 되었고, 그 뒤 예조참판을 거쳐 1821년(순조 21) 강화부유수를 역임하였다. 그는 당대의 문장가로 홍석주(洪奭周) 등과 함께 명성이 높았으며, 여한십대가(麗韓十大家)의 한 사람으로 꼽혔다. 또한 성리설에 관하여 일가견을 가지고 있어서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을 둘러싼 호락논쟁(湖洛論爭)에 이간(李柬)과 낙론(洛論)을 지지하였다.

김상현은 약관 때부터 영민하고 준수하여 글을 잘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어렸을 때 광주(廣州)에 살면서 정약용에게 배움을 받았다. 그가 조금 자라자, 정약용은 그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노론의 명가(名家)인데, 왜 나를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그러면 자네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게 될 것일세. 북촌(北村)에 김매순이 있으니, 그분이 정말 자네 스승일세. 자네는 그분을 스승으로 섬기게”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김매순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1827년(순조 28) 17세의 나이로 증광 생원시에 3등 2인으로 합격하여 인릉참봉, 사재감 봉사, 군자감 봉사, 직장, 주부, 청양현감, 증산현감을 지냈으며 가는 곳마다 유학의 도를 숭상하고 학문을 진흥시켰다. 영평군수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1859년(철종 11) 별시 문과에 갑과(甲科) 3인으로 장원급제하여 통정에 승진, 공조참의, 동부승지, 좌부승지, 병조참의, 대사간을 지냈다. 1864년(고종 2) 안동부사와 좌부승지, 이조참의를 거쳐 1866년(고종 4) 가선에 승진, 한성좌윤, 형조참판, 도총부부총관, 동지경연, 의금부, 돈녕부, 춘추관, 성균관사, 개사성, 이조참판, 홍문관제학, 도승지, 제용감 제조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였다. 그 후 경기, 평안감사, 양관대제학, 도승지, 제용감 제조를 역임했다.

1882년 시강원우부빈객(侍講院右副賓客)과 우참찬·좌참찬·판돈녕부사 등을 지냈으며, 1885년 고종에게 세 차례나 치사하기를 청하여 봉조하(奉朝賀)가 되었

다. 그 뒤 제술관 등을 지내고, 1887년에는 소과의 시관(試官)을 맡아보았다. 문장에 능하여 왕실에서 필요한 전문(箋文)·죽책문(竹冊文: 대나무 간책에 새기는 옥책문)·옥책문(玉冊文: 제왕·후비 등의 호를 올릴 때 쓰는 德을 읊은 글)·행장·악장문(樂章文) 등을 저술하였다. 문집으로는 『경대집(經臺集)』과 『번유합고(樊悠合稿)』가 있다. 1891년(고종 28) 문헌(文獻)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번유합고』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김재화(金在華)와 김재곤(金在崑) 형제의 시집이다. 모두 2권 1책으로 활자본이다. 현재 규장각 도서와 장서각 도서 등에 소장되어 있다. 김재곤은 김상현의 아버지이다. 아버지의 시집에는 아들 김상현의 시에 차운한 것이 많으므로 함께 기술하였다. 아버지는 세상일에 뜻을 두지 않고 강산을 두루 유람하면서 시문에 심취하였다. 어려서부터 문장에 능했으며 고결한 성품으로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기호지방에 거주한 듯하며,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丁學淵) 등을 비롯해 그 지방의 명사들과 어울렸다.

이것은 1879년(고종 16)에 김재곤의 아들 김상현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권말에 김상현의 발문이 있다. 김상현의 발문에 따르면, 김재화는 이의산(李義山)의 시의 기교가 뛰어난 점을 좋아했고, 김재곤의 시는 왕완정(王院亭)의 신운(神韻)을 주로 하였다고 한다.

권1은 김재화의 시집인 「번천시략(樊泉詩略)」으로 시 145수, 권2는 김재곤의 시집인 「유유옹시략(悠悠翁詩略)」으로 시 157수가 수록되어 있다. 「번천시략」에는 1802년(순조 2)부터 1832년 사이에 지은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자연을 읊은 것, 속리산·금강산·화양서원(華陽書院) 등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지은 것 등이 있다. 또한 김재곤·이가운(李家運)·이탁중(李度中)·신명하(申命河)·이종인(李鍾仁)·이교영(李教永) 등을 상대로 하여 지은 것 등이 있다. 이 가운데에는 김재곤과 김상현의 시에 차운(次韻)한 것이 여러 편이 있다.

「유유옹시략」에는 용문사(龍門寺)·신록사(神勒寺) 같은 유명한 절이나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지은 시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자신의 심정을 친구에게 읊은 것이 여러 편 있다. 「독사유감(讀史有感)」·「동야희아배논사(冬夜喜兒輩論史)」 등의 시에서는 허무한 회고조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자손을 경계하기 위해 지은 것이 있다.

이 밖에 정숙보(鄭叔葆)·이공무(李公茂) 등의 시에 차운한 것, 이탁중·조철영(趙徹永)·신백현(申百顯)·이탁성(李度誠)·안업(安業)·유한준(兪漢雋)·정희순(鄭羲淳) 등과 화답한 것이 있다. 저자가 이 시기에 한문 학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사(詩社)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시로 「구일음기정진현(九日吟寄鄭晉賢)」을 비롯해 여러 편이 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한문학을 연구하는데 참고자료가 된다.

참고할만한 문헌으로는 『철종실록(哲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국조방목(國朝榜目)』 등이 있다.

김성원(金聲遠)

안유경

생년 미상(?)~1592(선조 25). 조선 중기의 학자이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경구(景久), 호는 송산(松山)으로 증조부는 형조판서 김정(金淨)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충암(沖菴) 선생이라고 불렀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유학자이며 의병장인 중봉(重峯) 조헌(趙憲)의 문인이다.

어려서부터 독실한 행실이 있었고, 크고 작은 일에 관계없이 반드시 조헌에게 물어 그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 스승은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너는 성품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조명현의 후손이니 더욱 힘쓰라.”라고 하였으므로 김성원이 마음을 다하여 그를 따랐다. 스승인 조헌은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조헌이 의병을 일으키자 그를 따라 금산전투에 참가하였다. 이때 늙은 부모가 살아 있었으므로 가족이 전투에 참여하지 말 것을 말렸으나 김성원이 듣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백성은 아버지와 스승과 임금에게서 생육(生育)되었으므로 한결같이 섬기고 죽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더구나 임금이 난리를 피하여 피난을 갔으니 어찌 사사로움을 돌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금산군의 서쪽 경계에서 적과 하루 종일 싸워 적이 거의 패배할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나 아군의 후원세력이 없어 조헌과 함께 전사하였다.

당시 금산(錦山)의 왜군이 충청도 일대로 세력을 넓힐 기세라는 소식을 듣고, 곧장 금산으로 가서 왜군에게 함락된 금산의 10리 밖에 이르렀다. 당초 호남 순찰사 권율(權慄)과 합세하여 적을 협공할 계획이었으나, 권율로부터 그 기일을 미루자는 편지를 받았다. 그러나 왜군은 이미 조헌이 거느린 의병의 약점을 알고 역습해 왔다. 그의 군사는 역전 분투하여 왜군에게 많은 손해를 주었으나 많은 수를 대적하지 못하여 조헌과 7백의사가 전멸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호남 방어에 근거지였던 금산을 회복하게 된다.

처음에 김성원이 집을 떠날 때 집안사람들이 울며 말하기를, “혹 불행한 일이 있게 되거든 의대(衣帶)에 표시하여 가족들이 알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김성원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평생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이 충(忠)과 의(義)뿐이므로, 장부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모래밭에 주검을 버려야 할 뿐이거늘 어찌 거두어 묻는 일에 마음을 두겠는가?”라고 하였다. 김성원이 죽을 때에 나이가 스물 여덟이었는데, 그의 주검을 찾지 못하여 의총(義塚), 즉 의국열사의 시신을 수습하여 하나의 무덤에 함께 묻었다. 그 앞에 윤근수(尹根壽)가 쓴 큰 비석이

있는데, 김성원의 이름을 특별히 드러내었다.

그가 데려갔던 종 몽해(夢亥)가 죽은 시체들 속에 몸을 감추어서 살아남았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인이 군전(軍前)에 나아가니 조야(趙爺)가 일찍이 그 곁에 두고서 크고 작은 일을 자문하였다. 일이 급하게 되자 장하(帳下)의 선비 중에 조야를 만류하여 도피하기를 청한 자가 있었으나 조야가 우리 주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우리들에게는 오늘 죽음이 있을 뿐이니 의리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적이 과연 장하에 난입하므로 우리 주인이 몸으로 조야를 막아 가리고서 활을 당겨 적 여섯을 쏘아 죽이니 적이 감히 전진하지 못하였다. 다시 활을 쏘려 하자 활시위가 끊어지고 활이 부러졌으나 오히려 발을 돌리지 않으니, 적이 드디어 우리 주인을 베고 조야까지 베었다.”라고 하였다.

예전에 중국의 주희는 난공자(欒共子)의 “백성은 아버지와 스승, 임금에게서 생육되었으므로 한결같이 섬겨야 한다”라고 한 말을 『소학』의 글에 실었다. 난공자는 춘추시대 진(晉)나라 난성(欒成)의 시호이다. 난성이 애후(哀侯)를 보좌하였는데, 무공(戊公)이 도성을 공격하여 애후를 죽이고 난성을 불러 상경(上卿)을 삼으려 하자, “생육시켜 준 은혜에 보답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다”라고 사양하여 응하지 않고 싸우다가 죽었다. 그러나 예로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도리를 다하기를 바랄 수 없으므로 스승을 좇는 도리는 쓸데없다 하여 드디어 폐기하게 되었으니, 그 이치가 또한 절로 그러하다. 김성원으로 말하면 스승을 섬기는 도리에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그 임금과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아! 아름답다.

참고할만한 문헌으로는 『선조실록(宣祖實錄)』,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이 있다.

김수근(金洙根)

안유경

1798(정조 22)~1854(철종 5).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회부(會夫), 호는 계산초로(溪山樵老)이다. 김원행(金元行)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김이직(金履直)이고, 아버지는 목사 김인순(金麟淳)이며, 어머니는 신식(申○)의 딸이다.

김수근에 앞서 증조할아버지 김원행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김원행의 자는 백춘(伯春), 호는 미호(湑湖)로, 당숙인 김승겸(金崇謙)에게 입양되어 종조부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손자가 되었다. 이재(李縉)의 문인이다. 당시의 학문은 송시열(宋時烈)을 종장(宗匠)으로 받드는 성리학이 주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학파 내에서도 낙론(洛論)과 호론(湖論)의 대립이 있었다. 대립의 발단은 김창협과 권상하(權尙夏)의 학설에서 시작되었다. 권상하의 제자인 이간(李柬)은 김창협의 학설을 이어 이재와 함께 낙론의 중심이 되고, 권상하의 제자 한원진(韓元震)은 권상하의 학설을 이어 호론의 중심이 되었다. 김창협의 손자이자 이재의 문인인 김원행은 자연스럽게 낙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활동하였다. 그의 사상은 대체로 김창협의 학설을 답습하여 주리(主理)와 주기(主氣)의 절충적인 입장에서 있었다. 그는 심(心)을 리(理)라고도 하지 않고 기(氣)라고도 하지 않으며, 리와 기의 중간에 처하여 이기(理氣)를 겸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겼다. 이것은 바로 이황의 주리설과 이이의 주기설을 절충한 김창협의 학설을 계승한 것이다. 그의 학통을 이은 제자로는 아들 김이안(金履安)과 박윤원(朴胤源)·오윤상(吳允常)·홍대용(洪大容)·황윤석(黃胤錫) 등이 있다.

김수근은 1828년(순조 28)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음사(蔭仕)로 동몽교관(童蒙敎官)이 되었으며, 1833년 시제에서 수석하여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이듬해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835년(헌종 1) 규장각대교(奎章閣待敎)가 된 뒤 1837년 대사성, 1840년 이조참의, 1845년 우윤(右尹), 1847년 충청도관찰사, 1850년(철종 1) 이조참판·공조판서, 1851년 우참찬·대사헌, 다음해에 이조판서와 홍문관대제학·선혜청당상, 1853년 병조판서, 1854년 형조판서·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당대 세도가의 출신으로서, 동생 김문근(金汶根)은 철종의 장인으로 영은부원군(永恩府院君)에 봉하여졌고, 두 아들 김병학(金炳學)과 김병국(金炳國)도 모두 정승에 올랐다. 철종 묘정(廟庭)에 배향되고 거제의 반곡서원(盤谷書院)에 배향되었다. 편저로는 『삼연선생연보(三淵先生年譜)』가 있다. 시호는 정문(正文)이다.

『삼연선생연보』는 김창흡(金昌翕)의 연보로서, 김수근이 1854년(철종 5)에 간행한 것이다. 1책(91장)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김창흡은 본관이 안동, 자가 자익(子益), 호가 삼연(三淵)으로 김상헌(金尙憲)의 증손이며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다. 1673년에 진사가 되었으나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자 영평(永平)에 은거하여 그 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둘째 형인 김창협(金昌協)과 함께 이단상(李端相)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숙종 연간의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는 형인 김창협과 달리 낙론에 속하였으나 그 사상적 경향은 역시 이황과 이이를 절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익호는 문강(文康)이다.

이 책은 원래 김창흡의 4대손인 김매순(金邁淳)이 연보를 엮고 행장과 묘지를 붙였던 것에 김창흡의 방계 5대손인 김수근이 1854년 그의 선조의 문집을 간행하면서 약간의 내용을 보충하여 같이 간행한 것이다. 김창흡의 연보에 더하여 김양행(金亮行)이 지은 행장, 김매순이 지은 묘지로 이루어졌으며 김수근이 붙인 발문이 있다. 연보에서는 김창흡의 생애와 함께 그가 저술한 서(書)·제문(祭文)·상소문(上疏文) 등도 다수 수록하였다. 사후의 사실까지도 특히 자세히 정리하여 본서가 편찬되기 직전인 1853년에 유생들이 그를 석실서원(石室書院)에 배향하기를 청한 것까지 기록하였다. 연보의 마지막 부분과 묘지의 가족관계 기록 중 일부는 본서 간행시에 보충하였던 것이다. 김창흡의 생애는 물론 당시의 정치적 학문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자료이다.

참고할만한 문헌으로는 『순조실록(純祖實錄)』, 『헌종실록(憲宗實錄)』, 『철종실록(哲宗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청선고(淸選考)』, 『조선도서해제(朝鮮圖書解題)』 등이 있다.

김승학(金承學)

안유경

1881(고종 18)~1965. 독립운동가이다.

본관 배천(白川). 자는 우경(愚敬). 호는 희산(希山). 일명 김탁(金鐸)이라고도 불렀다. 평안북도 의주(義州) 출생이다. 고향에서 한학을 수학하다가 24세에 상경해 한성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탐구하였다. 졸업 후 2년간 교육계에 종사하였다.

1907년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 체결되자 서울 종로에서 며칠 동안 반대연설을 하다가 체포되어, 평리원(平理院) 구치감에서 3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미7조약은 1907(융희 1)년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에 ‘정미7조약’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협약과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한다. 1907년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늑약이 대한제국 황제의 뜻에 반하며 일본제국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불평등조약임을 알리려 하였다.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일본 정부는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제국 경성에 파견, 한국 측이 을사보호조약을 위반했다고 하여 고종에게 압력을 넣어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20일 덕수궁 중화전에서 고종의 양위식을 강행하였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7월 20일 양위식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이어 순종이 즉위하고 4일 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이 체결되었다.

김승학은 1910년 이후 만주로 건너가, 봉천강무당(奉天講武堂)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뒤에는 의병투쟁에 가담하였다. 1919년 각계각층의 대표 560여 명이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에 모여 대한독립단을 조직할 때 참여하여 독립단총재부에서 활동하였다.

동시에 대한민국임시정부 평북독관부(平北督辦府) 국내특파원으로 선발되어 백의범(白義範)·백기준(白基俊)과 함께 국내에 잠입하여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 연통제(聯通制)를 조직하고 88개소에 달하는 독립단 지단(支團)을 설치, 운영하였다. 민국독립단(民國獨立團)의 재무부장의 일을 맡아 무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처럼 많은 군자금을 모금하고 수백 명의 애국청년을 독립군에 가입시키는 등 여러 활동을 하였다.

1921년 상해(上海)로 가서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사의 사장이 되어

민족정기를 양양하며 독립사상을 고취하였고, 그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혁명단체대표자대회에 참석하였다. 1922년 중한호조사(中韓互助社) 선전부장에 취임하여 양국간의 친선을 도모하였고, 임시의정원의 평안도 대표의원의 일을 맡아보았다. 1924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학무부차장이 되어 학무부총장의 직무까지 겸임하였다. 1926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명의로 참의부참의장(參議府參議長)이 되어 참의부의 재건운동에 힘썼다. 1928년 중국 몽강현(濛江縣)에 무관학교를 설치하고 군인 2백명을 육성했으며, 참의부의 기관지인 『정로(正路)』도 간행하였다. 『정로』는 1945년 11월 1일 창간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기관지이다.

그리고 길림(吉林)에서 정의부(正義府)·신민부(新民府)·참의부(參議府)의 삼부통일대표회의에 참의부대표로 참석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표인 홍진(洪震) 등과 협의 끝에 한국독립당과 군민의회(軍民議會)를 조직하였다. 이 회의에서 그는 군민의회의 민사위원과 한국독립당의 최고간부직을 겸하게 되었다. 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중일군경합동대(中日軍警合同隊)에게 붙잡혀 신의주와 평양 등의 감옥에서 5년 3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다시 중국에 건너가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광복 후에 귀국해 한때 당정(黨政)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광복 후 귀국하여 독립신문사 사장·대한독립촉성회(大韓獨立促成會) 부위원장·한국독립당 감찰위원장·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장·건국공로자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1920년부터 대종교(大宗教)에 입교하여 참교(參敎)·지교(知敎)·상교(尙敎)·정교(正敎)를 지냈고 대형(大兄)의 호를 받았다.

이처럼 김승학은 여러 계열로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단체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애썼다. 독립신문 주필이었던 이광수가 친일로 변절하면서 독립신문도 휘청거릴 때 이를 맡아 정상화하였으며, 김구선생의 권유로 『독립운동사』를 집필하면서 당시 항일에서 친일로 변절한 이들의 행적을 소상히 기록하여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를 바로잡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그의 묘는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으며 봉분 높이는 1.2m이고 둘레는 10m이다. 선생은 돌아가기 전에 유언을 통해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파들이 묻혀있는 국립묘지의 안장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당시 국가보훈처에서 서삼릉 지역의 땅을 제공하여 그곳에 묻히게 된 것이다.

저서로는 『한국독립사(韓國獨立史)』 등이 있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

또한 김승학은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한 백암(白巖) 박은식(朴殷植)이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지혈사』를 쓸 당시 자료를 수집해 저술을 돕기도 했다. 증손자 김병기는 “당시 박은식과 증조부는 나라 잃은 역사, 피 흘린 투쟁의 역사를 쓰면서 나중에 나라를 찾으면 한국독립사를 쓰자고 약속했다”며 “일제의 추궁을 피해 깊숙이 숨겼던 자료는 백범 김구에게 전해졌다가 다시 증조부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해당 자료는 1965년 김승학이 쓴 한국 최초의 독립운동사

인 『한국독립사』의 기본 자료가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배용 원장은 “김승학선생은 일제의 고문에도 자료가 어디 있는지 실토하지 않고 잘 보존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번 기탁은 그 정신을 후손에게 길이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배용은 “특히 삼의사 국민장 행사요령 등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귀한 자료이다”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사의 지평을 넓히고 후손들이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1964년 발간한 『한국독립사』의 서문에서 이승만이 친일과를 다시 중용하는 일에 대해서 “건국 이래 이 국가 백년대계(독립유공자 표창과 친일과 청산)의 원칙을 소홀히 한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독립운동자를 박해하던 민족의 반역자를 중용하는 잘못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전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시정 중 가장 큰 과오이니 후일 지하에 돌아가 수많은 선배와 동지들을 어떻게 대할까 보나”라고 토로하였다. 그는 “이 중대한 실정으로 말미암아 이승만은 집정 10년 동안 많은 항일투사의 울분과 애국지사의 비난의 적(敵)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친일 세력이 해방 후에도 사회의 주도세력이 되면서 역사학계도 조선 후기 노론과 일제 식민사학을 계승한 학자들이 주도해 현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참고할만한 문헌으로는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大韓民國獨立有功人物錄)』(국가보훈처, 1997), 『3·1독립운동(獨立運動)과 임시정부(臨時政府)의 법통성(法統性)』(이현희, 동방도서, 1987), 『대한민국임시정부사(大韓民國臨時政府史)』(이현희, 집문당, 1982),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1985) 등이 있다.

김시민(金時敏)

안유경

1681(숙종 7)~1747(영조 23).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사수(士修), 호는 동포(東圃) 또는 초창(焦窓)이다. 경기도 양주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호조정랑을 지낸 김성후(金盛後)이며, 어머니는 임천 조씨(林川趙氏)로 관찰사 조원기(趙遠期)의 딸이다.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과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의 문인이다.

김시민은 어려서부터 지극한 효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조심하며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자존(自尊)하지 않았다. 14~5세 무렵에 집안 어른인 김창협의 문하에 들어가서 『대학』과 「서명(西銘)」·「태극도(太極圖)」 등의 글을 배웠는데 듣는 대로 이해하여 김창협으로부터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깝다는 평을 들었다.

오랜 병을 앓던 부친의 증세가 심해지자 직접 약을 달이고 상분(嘗糞: 사람의 대변의 맛을 보아 그 건강한 정도를 살펴보는 의학적 행위를 말한다)의 정성을 다하였다. 부친이 돌아가시고 3년의 시묘 살이 동안 잠시도 띠를 풀지 않아서 한여름에는 흐른 땀으로 최질(상중에 입는 삼베옷)을 두른 곳의 피부가 모두 문드러질 정도였다. 또 모친인 조부인이 70세의 나이로 쇠약해져 병이 들자 다른 곳에서 자다가도 곧장 일어나 옷을 갖추어 입고 문안하였다. 그의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조부인이 “이 일은 정성과 효심이 감응해서 그러한듯하다. 내가 밤사이 기침을 하다가 기도가 한참 막혔는데 이제 괜찮다”라고 한 일화가 있다. 새벽마다 사당에 참배하고 물러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선조의 명령이 양양(洋洋)하실터인데 이곳에 계시지 않음은 내가 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아서인가? 아버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실까? 내가 체득한 것은 털끝 하나라도 버려두지 않으리라”라고 하며 실천적인 삶을 영위할 것을 다짐하였다.

김창협 등의 영향으로 출사보다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뜻을 둔 김시민은 52세인 1732년에 음보로 선공감역(繕工監役)을 맡아 태묘(太廟)를 수리한 공으로 사옹원주부·장예원사평·사직종묘령을 역임하였다. 이때의 공으로 현감직에 제수된 그는 외롭거나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먼저 규화(儒化)를 실천하는 목민관을 자임하였다. 1735년 낭천현감 재임 당시에 큰 흉년을 규화하는 공을 세워 벼슬을 올리는 승서(陞敍)하라는 명이 있었음에도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가 고을을 떠날 때는 그곳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거사비(去思碑)를 세워 공적을 기념하였다. 진산군수(珍山郡守)로 부임했을 때는 학궁(學宮)을 짓고 고을의 재정을 개선하고 선비를 양성하였는데, 그가 임지를 떠난 후에

도 진산의 유림들이 공을 제사하여 받들었다.

김시민의 교우 관계의 주요 인물들은 이종사촌인 신정하(申靖夏) 형제를 비롯하여 대체로 김창협과 김창흡의 문하생들인 이하곤(李夏坤) 등 당대의 시명(詩名)을 떨치던 인물이 주축이다. 그보다 10살이 많기는 하지만 서로를 깊이 알고 온 집안이 교류하며 천고에 큰 마음을 나누던 이병연(李秉淵)과의 만남은 그의 시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 홍중성(洪重聖)을 비롯하여 시인 홍세태(洪世泰)와 정래교(鄭來橋)등과도 교분이 깊었다.

김시민이 김창협과 김창흡에게 수학하였기에 학문과 문예 창작의 방면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김시민이 활동하던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을 지배하던 철학적 화두는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 논쟁이었다. 이에 대해 김창흡은 천하의 사람과 만물이 품부 받은 본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인물성동론’을 주창하였다. 김시민도 이 논의에 동조하여 인성과 물성의 같은지 다른지를 두고 벌어진 어유봉(魚有鳳)과 이현익(李顯益)의 논쟁에 가담하여 ‘인물성동론’을 주장하였다.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동일하다는 김시민의 철학 논리는 고(古)·금(今)의 가치를 우열의 논리로 이해하는 당시의 문예이론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별 사물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열을 가늠하는 결정론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사물의 본질을 관찰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 예로, 그들이 정선(鄭澈)이 그린 진경산수(眞景山水)를 높이 평가한 것도 우리 산수를 중국 산수인 양 왜곡하거나 비사실적으로 그리지 않고 높은 수준의 예술적 성취를 이룩했기 때문이었다.

사실이 왜곡되는 번잡한 세속의 삶은 서호(西湖: 중국의 항주)로의 도피를 시도하게 할 만큼 힘들었기에 그는 불교사상에 대한 탐닉과 죽림칠현(竹林七賢)과 도연명(陶淵明) 식의 고아하고 청렴한 은둔적 삶에 빠져들기도 하였다.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사물의 본질을 동일시하는 학문 태도는, 당대 지식층의 무조건적인 옛 것을 좋아하는 취향에 반발하며 우리 시대 우리 사람의 문예작품의 가치를 진실한 것, 훌륭한 것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김시민은 평소에 앓던 천식이 악화되어 1747년 3월 20일에 사망하였다. 사후에 이루어진 문집 간행은 그의 벗이자 평생의 지기였던 이병연이 유고를 정리하고 후사인 김면행(金勉行)이 조명리(趙明履)와 한원진(韓元震) 등에게 행장과 묘도문을 부탁하며 이루어졌다. 유고의 간행을 도맡은 이병연(李秉淵)은 시에 대한 뛰어난 조예로 온갖 시체에 능하며 김창협이나 김창흡 등을 비롯한 당대의 거유들에게 진송될 정도이던 김시민의 작품의 삼분의 이를 산삭하는 준엄한 편찬 태도를 고수하여 문집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처럼 그는 경사(經史)에 밝았고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특히 고체시(古體詩)는 독자적 경지에 도달하였다. 뒤에 김상훈(金相勛)·홍중주(洪重疇) 등 130여명이 그의 덕망과 효행을 나라에 주청하여 이조참의를 추증받았다.

저서로는 『동포집』이 있다. 이 책은 모두 8권 4책으로 목판본이다. 1761년(영조 37) 아들 김만행(金晩行)에 의하여 편집하여 간행되었다. 현재 규장각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두에 윤봉조(尹鳳朝)와 한계진(韓啓震)의 서문 2편이 있고, 권말에 1757년 신경(申暲)이 쓴 발문과 1761년에 김원행(金元行)이 쓴 발문 2편이 있다. 권1~6에는 시 899수, 권7에는 서(書) 18편, 잡저 17편, 권8에는 제문 11편, 가승(家乘) 7편이 있다. 부록으로 한원진(韓元震)이 쓴 행장, 이병연이 쓴 묘지명, 조명리(趙明履)가 쓴 묘갈명, 김재노(金在魯)가 쓴 묘표, 이병연과 홍중주(洪重疇) 등이 쓴 20편의 만사(挽詞)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에 정시(程詩) 11수는 모두 다 역사적인 고사를 가지고 읊은 시들이다. 그의 시는 뛰어난 경지를 이루었으며, 이병연과 함께 당대에 시명을 떨쳤다. 권7의 서(書)에는 시사(時事)·문후(問候)·예제(禮制) 등에 관한 내용이 많다.

이어서 잡저 17편이 있는데, 대부분 서문이나 발문이다. 잡저의 「제왕문성공집후(題王文成公集後)」는 왕수인(王守仁)이 경학에 있어서는 송나라 제현(諸賢)들이후에 제일인자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주자설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던 당시 유학계의 사정으로 보아 혁신적인 것이며, 양명학에 관하여 새로운 연구를 개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할만한 문헌으로는 『동국집(東國集)』, 『영조실록(英祖實錄)』 등이 있다.

김영행(金令行)

안유경

1673(현종 14)~1755(영조 31).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유(子裕), 호는 필운옹(弼雲翁)으로 아버지는 관찰사 김시걸(金時傑)이다. 아버지 김시걸은 자가 사흥(士興)이며, 사람됨이 효우(孝友)에 도탑고 선행을 즐기고 의리를 좋아하며 겉보기는 온화하고 평이한 듯하나 속은 실로 강직하며 더욱이 강상윤리의 대도를 지키는 것이 매우 확고하였다. 두 아들이 있었으니 김영행(金令行)과 김정행(金正行)이다. 김영행의 아들로는 생원(生員) 김이건(金履健)과 김이선(金履選)·김이원(金履遠)·김이억(金履億)이 있다.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의 문인이다.

조상의 은덕으로 벼슬을 얻어 현감이 되었다가, 1723년(경종 3) 소론 김일경(金一鏡) 등에 의해 노론 김창집(金昌集)의 일당이라 하여 파직되어 경상도 기장현(機張縣)에 유배되었다. 이것은 소현세자빈 민회빈 강씨 일족의 억울함을 상소하여 신원, 복권시킨 일을 말한다. 민회빈 강씨(愍懷嬪 姜氏)는 소현세자의 부인이다. 병자호란으로 남편 소현세자와 함께 도르곶에 의해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갔다가 귀환했다. 민회빈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상소를 처음 올린 김홍욱(金弘郁: 1602~1654)은 국문을 받던 중 장살되었는데, 이는 민회빈의 무죄가 알려지는 것을 인조(仁祖)가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인조는 자신의 반청(反淸)노선에 반기를 드는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다. 결국 귀국한 지 두 달 뒤인 4월 23일 인조의 어의 이형익의 시침을 받고, 3일 후 소현세자는 34세의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된다. 때문에 당대에도 신독재 김집, 송시열, 김홍욱, 송준길 등은 그녀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뒤 여러 번 억울함을 신원하는 상소가 올려졌으나 거절되었고, 숙종 때 송시열이 다시 그녀의 억울함을 주장하여 신원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 뒤 숙종 때 송시열, 김수항 등의 신원 상소로 복관되었다.

그 뒤 1725년 영조가 즉위하자 풀려나 우사어(右司禦)로 다시 기용되고, 이어서 임천군수(林川郡守)를 거쳐 첨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시문을 모은 『필운시문고(弼雲時文稿)』가 전한다.

『필운시문고』는 조선 후기의 문인 김영행의 시문집이다. 모두 9책이고 필사본으로 1747년(영조 23) 아들 김이건(金履健)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이 책의 권두에는 김이건의 발문이 있다. 그에 따르면, 김영행은 김창흡(金昌翕)에게 시를

배워 당시(唐詩)에 가깝다는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어릴 때에 시는 두보(杜甫)의 것이 아니면 조잡한 것으로 여기고, 문장은 유종원(柳宗遠)의 것이 아니면 비루하게 여겨 이를 본뜬다. 뒤에 이것이 옛사람의 껍데기를 흉내낸 것임을 깨닫고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필운시문고』 제1~4책은 「필운시고」로 시 623수와 부록으로 송창유고(松窓遺稿)가 실려 있다. 제5~9책은 「필운문고」로 제문 29편, 문(文) 3편, 가정(家狀) 2편, 변방(辨謗)·유사·책문(策問) 각 1편, 청정장암발구장심경(請鄭丈巖跋舊藏心經), 서연일기(書筵日記), 잡저 3편, 장(狀) 16편, 서(書) 19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필운시문고』의 시는 19세 때인 1691년(숙종 17)의 작품부터 실려 있다. 평생의 지우 윤백옥(尹伯勗)·이병연(李秉淵)과 숙부나 아들과 조카들에게 준 시가 많다. 시의 내용도 원로에서의 가족이나 친지 걱정이 주류를 이룬다. 가정사를 다룬 작품도 고풍(古風)에 가깝게 되어 사우(士友)에게 널리 읊조려진 경구(警句)가 많았다는 아들 이건의 지적대로, 시가 쉬우면서도 고풍을 풍긴다. 또한 노론 김창협(金昌協)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기 때문에 김창협(金昌協)의 당으로 지목되어 당쟁의 화가 잦았다. 윤백옥과 이병연 등의 산수벽(山水癖: 자연을 좋아하는 습관)에 경도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필운시문고』의 「송창유고」는 요절한 사촌 동생 김이정(金履禎)을 대신하여 김이건이 숙부의 시 37수를 모은 것이다. 제문은 대부분 가족과 친척들에 대한 것이다. 『필운시문고』의 문에는 1697년 도봉서원의 벽에 서원의 유래와 의의를 적은 「서도봉원벽(書道峰院壁)」, 1701년 병을 앓으면서 엄부(嚴府)의 행적을 회상한 「병중지애(病中志哀)」, 오랜 친구에게 보낸 편지글 「서증채문규선면(書贈蔡文揆扇面)」 등이 있다. 「변방」은 1713년 아버지의 막내아우인 김시보(金時保)의 비방을 변명한 것이고, 유사도 1742년 김시보의 언행을 기술한 글이다. 『필운시문고』의 책문은 1699년 증광시에 응시하였을 때에 지은 글이다. 관제(官制)·병제(兵制)·전제(田制)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청정장암발구장심경」은 1716년 유승선(柳承宣)과 자신의 집에 나누어져 보관되어 오던 『심경(心經)』을 합치고 발을 구한 내용이다. 「서연일기」는 과거에 오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뛰어난 문사와 식견으로 경연(經筵)에 입시하는 벼슬에 추천되었을 때인 1717년 9월부터 10월 사이의 일을 적은 것이다.

『필운시문고』의 잡저에는 주위의 비방이 심하여지자 발을 갈고 샘을 파 세상사에 뜻을 끊고자 하여 지은 의추재의 경과를 적은 「조휘곡의추재서사(朝暉谷依楸齋書事)」과 꿈에 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적은 「기몽(記夢)」, 5대조 김상헌(金尙憲)의 규식을 변통하여 혼란해진 묘제를 시정하고자 정조(正朝)·단오·한식·추석의 묘제(墓祭)에 관련된 규식을 정한 「묘제식례(墓祭式例)」 등이 있다.

『필운시문고』의 장에는 자신에게 육한 유생의 처리문제, 흉년이 들어 진휼방

법을 보고한 것, 소의 도살을 금하였는데 이를 위반한 일을 변명한 것, 수어청(守禦廳) 토지를 도지 주고 그 세금징수에 관한 문제, 사사로이 군정(軍丁)과 전선(戰船)을 쓴 데 대한 변명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지방 관리의 여러 정사를 살필 수 있다. 서(書)는 대개 가족과 신상의 문제, 선대의 제사나 묘지에 대한 글들이다.

참고할만한 문헌으로는 『경종실록(景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한국계항보(韓國系行譜)』(조용승, 1980) 등이 있다.

김유(金瀏)

안유경

1814(순조 14)~1884(고종 21). 조선 후기의 유학자이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사랑(士亮), 호는 굴은(橋隱)으로 김지관(金志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과거공부를 열심히 하였으나 중간에 뜻을 바꾸어 “문장학(文章學)과 같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며 과거의 일은 명(命)에 있을 뿐이다”라고 하고 과거의 일을 단념하였다.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에게 사사하였고, 돌아온 후에도 1년에 한두 번씩 찾아가 학문을 문의하기를 40여 년간 계속하였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들은 바를 기록하여 편집하고 성리학에 전심하였으며, 후생을 교육하는 데에도 힘을 썼다. 실학자로도 이름이 높다.

여수 지역의 대표적 유학자로 조선조 말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성리철학의 깊은 이치를 깨우칠 정도로 학문이 높았으나 벼슬을 마다하고 거문도에 낙영재를 짓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학문에 전념했다.

여수항에서 쾌속선으로 두어 시간 포말을 가르다 보면 세 개의 섬으로 형성된 아름다운 거문도(巨文島)를 만날 수 있다. 이 섬은 예부터 문장가들이 많다하여 ‘거문도(巨文島)’라 했다. 행정 구역상으로 거문도는 여수시 삼산면에 속해있다. 이 섬에는 ‘거문도’라는 지명의 유래를 입증해주는 사당 한 채가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조선시대 거유(巨儒) 굴은 김유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워놓은 ‘굴은당(橋隱堂)’이다. ‘굴은당’의 주인인 김유는 1814년 동도(거문도는 원래 동도와 서도, 고도로 형성됨)의 유촌리에서 출생한 당대의 선비로, 조선조 6대 성리학자로 손꼽혔던 장성의 노사 기정진의 수제자이기도 하다.

이 섬은 당초 서양에서는 ‘하밀톤’으로, 중국에서는 ‘거마도(巨磨島)’ 등으로 불렸던 것을, ‘거문도(巨文島)’라고 지명 이름을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김유이다. 김유가 타계한 1년 뒤인 1885년 영국 함대의 거문도 점거를 계기로 많은 내·외국인들의 섬 출입이 빈번해졌다. 이때 청나라 수군 제독 정여창이 김유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들의 필담에 감탄하여, 이 섬은 문장가가 많은 곳임으로 삼도(三島)를 클거(巨) 글월문(文) ‘거문도(巨文島)’로 명명해 줄 것을 조정에 건의함으로써 이때부터 거문도라 부르게 된 것이다.

오늘의 ‘거문도’를 있게 한 김유는 고려 말 경주김씨 김상촌(金桑村)의 후손으로 세조 때 난(亂)을 피해 이 섬으로 들어와 뿌리를 내렸다. 이 섬에는 김유와

관련된 옛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오고 있다. 조선의 큰 선비를 낳게 했다는 서도(西島) 수월산(水越山) 밑에 높이 30m 가량의 붓 모양을 한 문필암(文筆岩), 등대 곁 80평 가량의 넓다른 신선바위, 그리고 김유의 죽음을 슬퍼하며 용이 승천했다는 서도 농녕이 바위에 6m 깊이로 파인 웅덩이 등이 그것들이다.

김유는 유년시절 기정진에게서 학문을 닦은 뒤 고향에 돌아와 선배인 만해(晩海) 김양록(1806~1885)과 함께 낙영재(樂英齋)를 지어 영재교육에 힘썼고, 완도 청산도에도 서당을 열어 거문도와 청산도에서 제자들을 수없이 길러냈다. 당시 김유 밑에서 공부를 하기위해 영·호남 지방에서 유생들이 이곳 거문도로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특히 김유는 해외 이방인들이 면접을 요청할 때 제자들로 하여금 해안에서 글방까지 좌우로 늘어서게 하고, 예를 갖추어 손님을 대하고 필담(筆談: 붓으로 글을 써서 대화를 나누는 일)으로 그들의 머리를 숙이게 했다. 따라서 해외 인사들도 선생의 예절과 학문의 해박함에 감탄하여 당초 지명이었던 '거마도'를 '거문도(巨文島)'로 바꿔 부를 정도였으니, 그의 인품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절해낙도(絶海落島)의 청빈한 선비가 해외 인사들과 학문을 겨루어 지명마저 바꿔 놓은 것은 김유선생의 놀라운 업적이 아닐 수 없다. 김유는 거문도뿐만 아니라 청산도와 여호도에도 글방을 열고 제자를 가르치는 등 평생 동안 선비다운 기품을 보여줬다. 김유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날까지도 완도 청산재(靑山齋)에서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다가 1884년 7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는 『굴은재유고(楛隱齋遺稿)』가 있다.

김유가 타계하자 이곳 제자들은 낙영재에서 매년 9월 9일 제례를 지내다가 해방 후 고도에 새로 굴은당을 지어 그의 정신을 기려오고 있다. 낙영재는 1906년 사립 낙영학교로 개편되어 서도국민학교의 전신이 되었다. 굴은당의 유물로는 현감존문장(縣監存門狀)을 비롯하여 순영존문장(巡營存門狀), 영조기증선(英祖寄贈扇), 친필주선(親筆珠選), 해상기문(海上奇聞), 굴은제집(楛隱諸集) 등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1854년 러시아 함대가 거문도를 무단으로 침범했을 때 통상 교섭을 원한다는 그들의 뜻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 내용이 김유의 문집에 「해상기문」이라는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 문서는 우리나라와 서양이 최초로 작성한 외교 문서라고 전해지고 있다.

기정진과 김유 문하에서 수학했던 거문도 유촌마을 출신의 굴당(楛堂) 박규석(朴圭錫) 경사(經史)와 문학(文學)에 뛰어났으며, 스승인 김유가 타계하자 선생의 유고를 모아 『굴은재문집』을 펴냈으며, 낙영재(樂英齋)를 이어받아 후학 양성에 힘썼다. 김유와 함께 러시아 함선에 올라 필담을 나눈 만회 김양록도 모두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출신이다. 이 외에도 1937년에 발간된 『조선환여승람』에는 여수의 대표적 유학자 겸 유림들로 정상백을 포함한 59명이 실려 있다.

『굴은재유고』는 조선 후기 유학자인 김유의 시문집이다. 모두 4권 2책으로, 그가 죽은 후 17년 뒤인 1901년(광무 5)에 사촌 동생 김준(金濬) 등이 편집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권두에 1901년에 스승 기정진의 손자인 기우만(奇宇萬)이 쓴 서문이 있다.

권1에는 시 130수가 들어있고, 권2에는 詩 230수, 권3에는 잡저 20편이 있다. 이들 중에 「노문집지서(蘆門執贄書)」는 스승인 기정진에게 처음으로 찾아가면서 가르쳐 주기를 구하는 글이고, 「문음양승강(門陰陽升降)」은 역학에 있어서의 음과 양이 승강(升降)하고 소장(消長)하는 이치를 설명한 글이다. 「일속산방설(一粟山房說)」이란 천태산(天台山)에 은일한 황자중(黃子中)이 정사를 짓고 일속(一粟)이라고 이름한 데 대하여 석씨(불교)의 설과 같다고 논란한 글이며, 「태극권설(太極圈說)」은 “태극도를 그리면서 원도(圓圖)로 표시하는데, 이 원도의 ‘원’이란 어떠한 것이냐”하는 문제를 문답식으로 쓴 글이다. 「소도원설(小桃源說)」은仙境(仙境)이라 하는 도원(桃源)의 유무에 대하여 논한 후에 “다스리는 관원이 정치를 잘하여 온 백성이 안락하게 살게 되면 이것이 소도원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부선설(鼻船說)」이란 20인 정도가 탈 수 있는 조그마한 목판복개(木板覆蓋)의 반철갑(半鐵甲) 전선(戰船)을 만든 모형을 자신이 창안하여 도식(圖式)은 없이 그 설명만을 가한 것으로 과학적이요, 실용적인 배 만드는 조선의 모형설이다.

다음에 서(序) 8편, 기(記) 14편, 발(跋) 2편, 명(銘) 2편, 제문(祭文) 6편이 있다. 권4에는 1874년에 김유 자신이 쓴 가행록서(家行錄序)와 양세가행록(兩世家行錄)이 있고, 부록으로 만회김처사만시(晚悔金處士輓詩), 1879년에 쓴 동백기(冬柏記), 기정진이 쓴 사랑가덕후(士亮家德後) 1편이 있다. 부록으로 1901년에 기우만(奇宇萬)이 쓴 행장(行狀), 이어서 사촌 동생 김준(金濬)이 쓴 발문이 있다.

김재석(金載石)

안유경

1895(고종 32)~1971. 근대의 학자이다.

본관은 울산(蔚山). 자는 경담(景潭), 호는 월담(月潭)이다. 「행장(行狀)」에 따르면 그의 자와 호는 모두 간재(艮齋) 전우(田愚)가 친히 지어준 것으로, 석담(石潭) 즉 울곡 이이를 흠모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한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후손으로 순창군 복흥면 사창(社倉)에서 아버지 김병대(金炳大)와 어머니 행주 기씨(幸州奇氏)의 장남으로 1895년 9월 24일에 나주 여황면 흑석리의 외가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기주현(奇周鉉)의 딸이다. 할아버지 김상기(金相璣)는 1906년 최익현(崔益鉉)과 함께 을사늑약에 항거하는 유림들의 의병활동을 도모하다 일본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후에 고종은 그의 공적을 평가하여 독립의군부초토영참서관(獨立義軍府招討營參書官)을 제수하였다. 아버지 김병대는 호행으로 유명했으며, 약간의 나이에 송병선(宋秉璿)을 사사하고, 그 후 전우와 기우만(奇宇萬:기정진의 손자)을 따라 배웠다. 어머니는 기고봉(奇高峰)의 후손인 기주현(奇周鉉)의 딸이다.

김재석은 전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이규현(李圭憲)·정도현(鄭道鉉) 등과 교류하였다. 스승인 전우가 순창의 훈몽재(訓蒙齋)에서 강의할 때 10세의 나이로 『소학』 전편을 틀리지 않고 외워 전우로부터 친필 훈화(訓話)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김재석과 전우와의 첫 만남이었다. 어린 김재석이 당시 최고의 유학자로 추앙받던 전우를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소학』은 이후 그의 언행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재석은 전우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전우의 학문에 복응한다.

어린 시절 김재석의 종학(從學) 활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1세였던 1905년 가을에는 백헌(柏軒) 김관수(金觀洙)가 사대부 자식들을 데리고 서정병사에서 공부하자 김재석 역시 그를 따라 배웠다. 전우의 문인이었던 김관수가 당시 김재석에게 강조한 것은 선조의 덕행에 대한 계승과 조술 그리고 지행(知行)과 독서명리였다. 김재석의 학문과 행적을 살펴볼 때 김관수의 가르침 역시 어린 김재석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재석이 전우의 학문과 처사를 이해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지만, 김관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에는 결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행장」에는 “공은 타고난 기운이 순정하고 재주가 비

범하여 장로들이 모두 원대한 인물이 되기를 기대했다.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문리가 일찍 통하였고 총명함이 보통을 넘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평가는 결코 상투적인 미사구어가 아닌 것 같다.

김재석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은 할아버지 김상기의 항일운동인데, 이로 인해 김재석의 집안은 커다란 고초를 겪고 가사를 탕진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과 분위기는 김재석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김재석 역시 25세인 1919년에는 무력을 통한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재석이 무력 항일투쟁에 참여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고종이 일제의 음모에 의해 독살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의 승하는 당시 유럽들의 분노를 사고 있었다. 대한 제국의 백성으로 고종의 원수를 갚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였다. 아마 기미년 가을에 읊은 것으로 보이는 시에는 당시의 분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이슬 내린 가을 하늘 풀벌레 소리 요란한데(露下天高虫語亂)

수없는 상념으로 잠 못 이루네(百船懷抱不成眠)

제국의 도읍 그 치욕을 언제 씻을까(帝秦大恥何時雪)

가을바람 한강변에 서서 눈물만 흘리네(灑淚秋風漢水邊)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아 내외의 동지들과 항일단체를 조직하여 이를 지원하기도 하고, 상해의 임정산하의 요인이 국내에 들어오면 몇 년이고 집에 숨기고 숙식이나 자금을 제공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일운동을 도왔다. 김동수(金東秀)·김일두(金一斗)·정계원(鄭啓源) 등을 숨겨준 것도 그중의 하나였다. 또한 신채호(申采浩)와 뜻을 함께 하여 아주 친밀하게 지냈다.

1926년 할아버지를 여의고, 2년 후인 1928년 12월에는 아버지마저 작고한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뿐, 민족의 분열과 외세의 개입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이 몰려오게 된다. 56세에 6.25 전쟁으로 순창 사창에서 완산으로 이사한다. 그 후 김재석은 주로 시문(詩文)을 지어 음미하거나 비문(碑文)과 행장(行狀)을 지어 재야 유학자들의 활동을 선양하는 일에 종사한다. 지금 전하는 그의 문집에 수록된 상당수의 묘갈명과 행장들은 아마도 이 시기에 찬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71년 6월 18일 오안사의 인봉신장(麟峯新莊)에서 향년 77세로 생을 마쳤다.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묘덕촌 뒤 선영에 묻혔다. 저서로는 『월담유고』가 있다.

『월담유고(月潭遺稿)』는 근대의 유학자인 김재석의 시문집이다. 모두 8권 4책으로 연활자본이다. 1976년에 아들 김중섭(金鍾燮)과 오병근(吳炳根) 등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권용현(權龍鉉)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김중섭·오병근 등이 지은 후지(後識)와 친척인 김천수(金千洙)의 발문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

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권1에는 시 283수가 수록되어 있다. 시는 문체별로 정리되어 실려있는데, 5언은 모두 121수로 5언 절구 78수, 5언 율시 22수, 5언 고시 21수이다. 7언은 162수인데 7언 절구 65수, 7언 율시 95수, 7언 고시 2수이다. 권2에는 서(書) 58편이 실려있고, 권3에는 잡저 5편, 서(序) 20편, 기(記) 21편, 발(跋) 10편이 있다. 권4에는 명(銘) 1편, 찬(贊)·혼서(昏書) 각 2편, 상량문 13편, 축문 15편, 제문 14편이 있으며, 권5에는 비문 13편, 묘지명 1편, 묘표 14편이 있다. 권6에는 묘갈명 93편, 권7에는 행장과 가장 39편, 서사(書事) 3편, 전(傳) 3편이 있다. 권8에는 저자와 관련된 부록이 수록되어 있다.

서(書) 중에서 「답김성옥(答金聖玉)」은 광복이 되던 해에 교우인 김성옥에게 보낸 것이다. 일제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난 기쁨이 감동깊게 묘사되어 있다. 문집의 핵심은 권3에 수록된 잡저에 있다. 「수록(隨錄)」은 그의 학문적인 연구 결과가 집약된 글이다. 그 중에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 고종의 명으로 중국에 밀파되어 독립군 결성의 책임을 맡았던 이재륜(李載崙)의 활동상이 실려있어 주목된다. 이 밖에 1919년과 이듬해에 걸쳐 당시 계화도에 머물러 있던 전우를 찾아가 나눈 문답을 정리한 「화도기행(華島紀行)」이 있다. 「자경십도(自警十圖)」는 전우의 소심존성(小心尊性)의 뜻을 밝혀 존심의 수행법을 10폭의 도표로 그린 것이다. 이처럼 『월담유고』는 115명의 묘갈명과 39명의 행장이 수록되어 있어 20세 후반기 문인들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을사늑약 체결 당시 고종이 최익현에게 밀지를 내린 독립운동과 관련된 비화가 담겨 있어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

김창립(金昌立)

안유경

1666(현종 7)~1683(숙종 9). 조선 후기의 학자이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탁이(卓爾), 호는 택재(澤齋)이다. 택재라는 호는 김창립이 셋째 형인 김창흡(金昌翕)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중택재(重澤齋)라는 서실을 짓고 독서하였는데,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증조부가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이고 할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김광찬(金光燦)이며, 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김수항(金壽恒)으로 여섯째 아들이다.

김수항은 김창집(金昌集), 김창협(金昌協), 김창흡(金昌翕), 김창업(金昌業), 김창집(金昌緝), 김창립(金昌立) 등 여섯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질이 뛰어나 세간에서 소위 육창(六昌)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처럼 김창립은 당대에 손꼽히는 문벌이었던 안동김씨 가문이라는 명문을 배경으로 갖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영특한 기질이 나타나 기재(奇才)로 불렸으며, 특히 시를 잘 썼으나 병으로 18세에 요절하였다.

그는 15세에 발분하여 문장과 학문에 크게 힘을 썼다. 나이 16세에 민정중(閔鼎重)이 관례(冠禮)를 주관하면서 자(字)를 탁이(卓而)로 지어 주었고, 17세에 이민서(李敏敘)가 딸을 시집보내어 사위로 삼았다. 18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1683년에 한양에 천연두가 창궐하였는데, 마침 명성황후의 장례에 참석하였다가 감염되었다. 이 병으로 인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니 같은 해 12월 26일이었다.

김창립은 셋째 형인 김창흡의 문하에서 시를 배웠는데, 김창흡은 당시 조선 시단의 구태의연한 면모를 일신하여 새로운 시의 세계를 열기 위해 노력한 시인으로서 당대의 중추적 인물이었다. 김창립은 시를 배움에 있어 당시의 일반적인 학자들과는 약간의 구별되는 성향이 있었다. 『택재유타(澤齋遺唾)』의 부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그의 뜻이 과거에 응시하여 명성과 이익을 취하는데 있을 뿐만이 아니었다. 읽은 책이 많지는 않았지만 『시경』에 힘을 쓴 것이 가장 전일하여 항상 외우고 감상하였으며, 초사(楚辭)나 사마천의 『사기』, 고악부(古樂府), 당나라의 여러 시를 탐독하고 여기에 빠져 있었다. 이런 까닭에 그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나 글로 지어진 것이 절대로 세속의 틀을 답습하지 않았다.”

이러한 김창립의 뜻밖의 죽음은 가족과 주변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가문의 배경이나 개인적 능력을 고려해 볼 때 크게 성공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죽음으로

인해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실망감이 문집의 발간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가 죽은 뒤 7년째에 기사년(己巳年)의 화(禍)가 일어났다. ‘기사년의 화’는 숙종 15년인 기사년(1689)에 남인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자, 아버지 김수항(金壽恒)이 진도(珍島)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는 기사환국(己巳換局)을 말한다. 조선 숙종 때 소의(昭儀) 장씨(장희빈)의 아들 윤(詢)을 왕세자로 삼으려는 숙종에 반대한 송시열 등 서인이 이를 지지한 남인에게 패배하고, 정권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뀐 일이다.

화를 당한 날에 선친(김수항)이 김창흡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우 무덤에 내가 묘지명(墓誌銘)을 지으려고 한 지 오래 되었으나 너무나 슬퍼서 글을 짓지 못하였다.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으니 네가 묘지명을 지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명을 받았으나 슬픔이 심하여 글을 지을 수 없었다. 그 뒤 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음과 같이 묘지명을 지었다. “아우(김창립)는 사람됨이 아름답고 총명하며 준수하고 명랑하여 어려서부터 예지가 뛰어났다. 어려서 여러 형들을 따라 공부하면서 이미 『시경』의 국풍(國風)과 대아(大雅), 소아(小雅)의 원류(源流)를 들어보고 고금 성률(聲律)의 높낮음에 대해 취사선택할 줄을 알았는데, 이해력이 풍부하여 스스로 터득한 바가 많았다. 이에 평소 좋아하는 잡기(雜技)를 모두 버리고 오로지 문장에다 힘을 쏟았는데, 이미 형들인 김창협과 김창흡 등을 스승으로 삼아 마을의 동지 5-6명을 인솔하여 주야로 어울려 서로 갈고 닦는 것을 일삼았다. 『시경』·『초사(楚辭)』·『문선(文選)』과 옛날 악부(樂府)로부터 당나라 중기 여러 학자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구하고 심취하여 시가(詩歌)로 발로되었다. 특히 사마천의 『사기』를 좋아하여 매양 읽다가 경경(慶卿)과 고점리(高漸離)가 축(筑)을 타며 슬프게 노래하는 대목에 이르면 대뜸 탄식하고 강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여기에서 경경은 형가(荊軻)이다. 『사기』에 “고점리는 축(筑)을 잘 탔는데, 형가와 친구였다. 형가가 진시황(秦始皇)을 저격하러 길을 떠나자 연(燕)나라 태자 단(丹) 등이 역수(易水)에 나와 전별하였는데, 고점리는 축을 타고 형가는 노래를 부르자,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형가는 진시황을 저격하였다가 미수에 그쳐 죽었고 고점리는 성명을 바꾸고 머슴살이를 하였다. 진시황이 고점리를 잡아다 눈을 빼고 곁에 두고 축을 타게 하였다. 고점리가 축 속에다 칼을 넣어 두었다가 틈을 타 진시황을 찔렀으나 맞지 않아 피살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평소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과 같이 날마다 술을 마시고 이소(離騷: 옛 초나라 굴원(屈原)의 서정시)나 읊조리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였으니, 대체로 그의 뜻은 세상의 부귀공명을 하찮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간혹 태학(太學)에 나가 노닐면서 누차 과시(課試)에 합격하였으나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아우는 선량하고 사람을 널리 사랑

하였다. 집에서는 효도하고 사람과는 신의가 있었으며, 특히 친구 간에 독실하였다. 이로 인해 그와 노니는 자들은 너나없이 진심으로 사모하였고, 그가 죽었을 때 동기간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였는가 하면 심지어 상복(喪服)을 입기도 하였다.

1683년(숙종 9년) 정월에 아우가 벽에다 큰 글씨로 ‘나의 나이 18세이다.’라고 썼는데, 이는 스스로 격려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결국 그해 12월 26일에 죽고 말았으므로 사람들이 예언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죽은 뒤에 동지들이 상자 속에서 글 수집 편을 찾아내어 김창흡의 산정(刪定)을 거치고 나서 그가 강습한 서실의 이름을 따라 『택재유타(澤齋遺唾)』로 이름을 붙였다. 그의 묘소는 석실(石室) 선영에서 몇 리 떨어진 양주(楊州) 울북리(栗北里)에 있는데, 동쪽으로 수십 보 떨어진 곳에 선친의 묘소가 있다.

『택재유타』는 김창립의 시집이다. 단권 1책이다. 그의 동문인 홍유인(洪有人)·유명악(兪命岳)·최동표(崔東標) 등이 그가 죽은 지 1년 만인 1684년(숙종 10)에 유고집을 모아 발간을 추진하였으며, 김창흡이 그것을 산정하여 이듬해에 간행하였다. 초인본은 서사활자를 사용하여 간행하였으며, 이 중간본은 1700년(숙종 26)에 강화부에서 운판활자로 다시 간행되었다.

『택재유타』는 서(序), 시(詩), 부록(附錄), 발문(跋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로 망부석(望夫石), 조야제(鳥夜啼), 소년행(少年行), 취귀(醉歸), 독대학(讀大學), 분오곡(奮五穀), 칠석사(七夕詞) 등 85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행장(行狀), 묘표(墓表), 묘지명(墓誌銘), 김창립전(金昌立傳)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이 유고집의 서문과 발문을 쓴 인물들이 당대를 대표하는 명사들이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김석주(金錫胄)의 서문과 권말에 김창흡, 송시열(宋時烈), 남용익(南龍翼), 김만중(金萬重)의 발문이 있다.

김창립은 과거에 응시하기 위하여 배우는 시를 거부하고 『시경』의 시나 고풍시(古風詩)를 따르려고 노력하였다. 10세 때에 처음 한시를 지었고, 한시에서 추구하는 바가 남달라서 주위의 기대를 모았으나 일찍이 죽는 바람에 완성을 보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가족과 친지로부터 깊은 애도를 받았다. 이 시문집이 비록 단권(單卷)이고 수록 내용도 풍부하지 않으나 문집으로서의 엄연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김태원(金泰元)

안유경

1863(철종 14)~1932. 조선 말기의 의병장이다.

본관은 해풍(海豐). 자는 춘백(春伯). 호는 집의당(集義堂)으로 서울 출신이다. 아버지 성균관 진사를 지낸 김집(金鑣)과 어머니 재령 이씨(載寧李氏) 사이에서 1863년 9월 15일에 서울 주자동(朱子洞) 사저에서 태어났다. 1932년 3월 5일 정오에 원주(原州: 지금의 영월)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이 70세였다. 원주 공순원(公順院) 한남산(漢南山) 유좌(西坐 :동향) 언덕에 장사지냈다.

1863년(고종 원년) 한양에서 태어났으며 무관직인 별군직과 선전관을 지냈다. 1895년(고종 32) 을미사변에 이어 단발령이 공포되자 김하락(金河洛)·구연영(具然英)·조성학(趙性學)·신용희(申龍熙) 등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경기도 이천으로 내려와 의병을 모집하고 의병조직인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 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단발령이 공포되자, 이미 이천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에 의병봉기 기운이 조성되어 있었으므로 광주·시흥·안산·죽산·음죽·지평·포천 등 여러 고을에서 의병이 모여들어 ‘이천수창의소’가 성립되었다. 1896년 1월 이천수창의소 선봉장으로 안성 일대의 의병을 모아 항일무장투쟁에 나서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을 벌인 이천의 백현(魄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백현 전투’란 1896년 1월 경기도 이천의 백현에서 의병과 일본 수비대간에 벌어진 전투이다.

백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천의 의병은 1896년 2월 13일 이천 서쪽의 이현(梨峴) 전투에서도 일본군과 돌격전을 벌였으나 패배로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흩어진 군사들이 2월 25일부터 다시 이현에 집결하여 부대를 수습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광주 의병과 여주 의병이 이천 의병에 합세하였는데, 각 지역의 의병이 통합되어 병력이 2,000여명에 달하게 되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이에 남한선성으로 본진이 옮긴 뒤에는 서울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의병 진영의 내분으로 서울 진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의병 진영의 활동이 대부분 각 지역에서 친일 개화파를 응징하여 일제 침략 세력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임에 비해, 이들은 서울로 직접 진공함으로써 국왕을 보호하려 했다는 점에서 근왕정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화했다고 하겠다.

남한산성 전투에서 패한 뒤에는 제천의 유인석(柳麟錫) 의진을 거쳐 예천의

서상렬(徐相烈) 부대에 합세하여 의병활동을 계속하였다. 관군의 토벌작전에 밀리게 되어 낭천(狼川: 현재의 화천) 전투에서 서상렬을 잃고, 유인석을 따라 만주의 회인현(懷仁縣)까지 이동하였다.

1905년에는 원용팔(元容八) 의진에 가담하였으며, 1906년에는 최익현(崔益鉉) 의진의 소토장(召討將)으로 참여하였다. 1907년에는 이강년(李康季) 의진에 참여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이강년이 체포된 뒤 원주로 낙향하여 ‘존화양이론(尊華攘夷論)’을 후학에게 펼치다가 생애를 마쳤다. 199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문집에는 『집의당유고(集義堂遺稿)』가 있다.

『집의당유고』 행장의 내용에 따르면, 타고난 자질이 뜻과 기개가 크게 뛰어났고 위풍이 당당했으며, 목소리는 크고 맑았다. 관례를 올리고 나서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여 별군직(別軍職)으로 첫 벼슬에 올랐으며 또한 승급하여 선전관(宣傳官)을 지냈는데, 동료들이 기개와 절조가 있다고 칭찬하였다. 1898년 1월 요동(遼東)으로 들어가 유인석에게 『대학(大學)』과 『맹자(孟子)』를 배웠으며, 가을에 돌아와 지평(砥平) 금리(錦里)에서 이근원(李根元)을 스승으로 섬겼다. 이에 스승은 일찍이 김태원이 의지가 굳세고 강직하여 굽히지 않으며,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다고 칭찬하였다.

집안이 가난하여 비록 쌀이 떨어진 때라 할지라도 편히 처하였으며, 선대의 묘소가 4백, 5백 리나 떨어져 있었으나 한 평생 봄가을로 빠지지 않고 반드시 가서 성묘하였다. 더러 여관에서 선대의 기일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옷과 갓을 차려입고 앉아 밤을 새웠다. 사문(師門)의 일로 군현(郡縣)을 두루 돌아다녔으나 조금도 괴로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며, 나라 안에 덕망과 학문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원근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찾아가서 만났다. 젊어서는 일찍이 술을 좋아하여 몇 말의 술을 사양하지 않았으나 유인석에게 경계의 말씀을 듣고부터는 곧바로 술을 끊고 늙기까지 조금도 입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의관을 매우 거룩하게 하여 아무리 심하게 병이 들어도 일찍이 두건과 버선, 행전을 벗은 적이 없었다.

서사(書社)에 유인석, 이근원 두 선생의 화상을 봉안하고 매달 초하루에 심의(深衣)와 대대(大帶) 차림으로 봉심(奉審)하고 참배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으로서 학문에 종사하지 않아 도리를 모른다면 곧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덕을 좋아하고 선비에게 몸을 낮추는 도량이 천성에서 나왔으므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높일만한 학업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릎을 꿇었다. 걸을 꾸미는 일이 없었고 좋지 못한 풍속을 바로잡는 기풍은 있었는데, 고급에서 찾아봐도 그와 짝할만한 자가 아마 드물 것이다.”

『집의당유고(集義堂遺稿)』는 충청북도 제천에서 활동한 문인이자 의병장 김태원의 문집이다. 1책의 필사본이다. 남아 있던 유문을 아들인 김성모(金性模)가 중심이 되어 편집하였으며, 성책된 문집은 『한말의병자료집』(독립기념관 한국독

립운동사연구소, 1989)에 영인되었다. 내용은 서문, 시(詩), 서(書), 잡저(雜著), 제문(祭文), 통문(通文), 부록(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아들인 김성모의 청으로 1951년 유지혁(柳芝赫)이 썼다. 서문에는 “스승인 유인석의 문하에 의로운 선비가 많이 있었는데, 집의당(集義堂) 김태원(金泰元)은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을미년에 국변(國變)을 당하게 되자 앞장서서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유인석을 따랐다. 대운(大運)이 전도(顛倒)되는 바람에 패하긴 하였으나, 의로운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어 전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삭발(削髮)의 화를 면하게 한 그 공을 어찌 작다고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잡저에 수록된 「을병사략(乙丙事略)」에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이후 이천에서 창의하게 된 경위부터 제천 의병과의 결합과 패퇴, 1896년 강원도 낭천(狼川)에서 함께한 서상열의 전사와 낙오, 요동에 스승 유인석(柳麟錫)을 찾아갔다가 돌아오기까지의 과정 등을 기록하였다. 유인석·이강년(李康季)·이근원에 대한 제문(祭文)과 유중교(柳重敎), 이근원의 묘의(墓儀)에 대한 통문(通文)이 있다. 부록에는 유사(遺事), 이규현(李奎顯)이 쓴 행장, 유제함(柳濟咸)이 쓴 묘표가 수록되어 있다. 한말 의병장 김태원의 학문과 사상 및 이천·여주·제천 의병의 활동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김태원이 경기와 충청 의병에 모두 참가하였으므로 문집에 수록된 서간문과 비지문을 통해 경기 의병과 제천 의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김필태(金必泰)

안유경

1728(영조 4)~1792(정조 16). 조선 후기 문신이며 학자이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대래(大來), 호는 둔암(屯菴) 또는 문과당(聞過堂)이다. 아버지는 김천덕(金天德)이고 어머니는 연안 이씨(延安李氏)이다. 오산(鰲山) 용강(龍江)에서 태어났으며 김창협(金昌協) 형제로부터 크게 인정받았던 김극광(金克光)의 증손이다.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와 미호(溟湖) 김원행(金元行)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당시 학계가 일반적으로 성명리학의 사변론에 치우쳐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반궁 실천(反窮實踐)에 힘썼다. 따라서 그는 심성이기(心性理氣)가 학자들의 급선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깊이 탐구하는 일도 없었다. 이에 대하여 타인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으면, 그는 곧바로 아직은 너무 이르다는 말로써 대답을 대신하곤 하였는데, 이는 그가 세속의 학문적 폐단을 징계하고자 함이었다.

일찍이 그가 『가식(家式)』을 저술하였을 때에 스승인 윤봉구는 그것을 『예기(禮記)』의 「내칙(內則)」과 표리가 될 만하고 칭찬하였다. 김원행이 처음으로 김필태를 만났을 때 기뻐하며 말하기를, ‘원광공(遠觀公)에게 이렇게 훌륭한 손자가 있었구나’라고 하고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에 들며 부지런히 힘써서 너를 낳아주신 분을 욕되게 하지말라(夙興夜寐 毋忝爾所生)’는 아홉 글자를 써주었다고 한다.

스물이 안되어 부친을 잃은 힘든 상황이었지만, 송시열과 이이의 학문을 거울 삼고 김원행·김창협을 스승으로 삼아 『대학(大學)』에 전념하였으며, 형이상학적 담론보다는 형이하적인 실천의 문제에 전념하였다. 1766(丙戌)년 이래 3년 동안 천등산(天登山) 기슭에 몇 칸 초옥을 마련하고 송시열의 화양(華陽)과 이이의 석담(石潭)에 비할 만한 서재를 마련하여 자신의 즐박한 품성을 길러나가기도 하였다. 평소 효심이 지극하였으며 부친상을 맞아 정성을 다하였다.

1754년 윤봉구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익힌 뒤에, 고산현(高山縣) 옥계(玉溪)로 옮겨가 은거하던 중 1780년(정조 4)에 도백(道伯)이 조정에 천거하여 조경묘참봉(肇慶廟參奉)에 제수되어 벼슬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1782년에는 사옹원봉사(司饗院奉事)로 승진하였으나 홀로된 모친에 대한 걱정이 병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관직에 나아갔다. 1783년에는 종묘서직장(宗廟署直長)으로, 이듬해인 1784년에는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에 제수되었다. 또 그

이듬해인 1785년에는 정월에 義禁府都事(義禁府都事)에, 3월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에, 6월에 영릉령(永陵令)에 제수되었다. 같은 해 9월 모친이 세상을 떠난 뒤 벼슬에서 물러나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마음을 끊고 생을 마칠 때까지 은거하였다.

사후에 효암서원(孝岩書院)에 추향되었으며, 저서로는 『둔암집(屯菴集)』이 있다.

『둔암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김필태(金必泰)의 시문집이다. 모두 6권 3책으로 활자본이다. 1811년(순조 11) 그의 문인인 황언진(黃彦鎭)·김준택(金濬澤) 등의 편집을 거쳐서 손자인 김광옥(金光鈺)에 의해 간행되었다. 김필태가 세상을 떠난 다음 해인 1793년에 장자 김시중(金時中)이 유교를 모아 편찬 작업에 착수했으나, 절반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손자인 김광옥이 이 일을 계속하였고 그의 문인들의 도움을 받아 1811년에 마침내 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권두에 심문영(沈文永)의 서문과 권말에 황언진·김준택(金濬澤) 등의 발문이 실려 있다. 이 책의 서문은 심문영이 김필태와 더불어 스승인 김원행을 사사한 인연 때문에 손자인 김광옥의 부탁으로 쓰게 된 것이다. 현재 규장각 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권1에는 운문으로 부 2편, 시 79수가 있다. 권2·3에는 산문으로 서(書) 62편, 권4에는 잡저 13편, 권5에는 서(序) 6편, 기 7편, 제(題) 1편, 발 4편, 변 2편, 명 9편, 설 1편, 권6에는 제문 19편, 묘지 9편, 행장 5편, 부록으로 송환기(宋煥箕)의 찬(撰)으로 묘갈명, 김광옥의 찬으로 가장(家狀) 등이 실려 있다. 권2에 수록된 김원행(金元行)과 윤봉구(尹鳳九)에게 올린 편지는 대부분 스승에게 통례(通禮)·관혼례(冠昏禮)·상제례(喪祭禮) 등 예에 대한 내용과 의리(義理)·이기(理氣)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물은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작품은 문사가 평이하고 담박하며 꾸밈이 없어 도학적인 지취가 풍긴다. 시는 주로 서정시가 많고 소옹(邵雍)의 운을 차운한 것이 군데군데 보인다. 편지 글 가운데 스승인 윤봉구와 김원행에게 올린 글에서는 그가 젊은 시절 성인의 가르침을 독실하게 믿고 실천하는 것에 만족하고 지식에 있어서는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았지만, 한번 깨달은 이후에는 『중용』과 『대학』에 담겨있는 의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절감한다고 하는 등 학문관의 변모과정을 살필 수 있다. 이들 간에 주고 받은 서한은 주로 예설과 이기설에 관한 문답인데, 주로 가례문목(家禮問目)·관혼례(冠婚禮)·상제례(喪祭禮)·이기설(理氣說)·예의문목(禮疑問目)·의리설(義理說) 등에 관한 내용이다.

잡저의 「거가범식(居家凡式)」은 제가(齊家)의 요체를 예법으로 파악하고 고금의 여러 서적들을 상고한 뒤에 자신의 견해를 참작하여 정리한 가정생활의 윤리법식으로서 인륜을 바로잡고 은혜와 의리를 도답게 하려는 의도에서 지은 글이다. 이는 실제에 부합되는 학문을 해야 한다는 그의 초기 학문관이 반영된 저작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 「일가지정(一家之政)」은 전적으로 가장에게 매어 있다는 내용이다. 그의 대표적 잡저라고 할 수 있는 그 밖에 눈에 띄는 작품으로 「궁거수약법(窮居守約法)」은 사람은 누구나 궁핍한 생활을 싫어하지만 궁핍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이상, 궁핍을 벗어나기에 급급하여 본성을 잃기 보다는 천명을 깨닫고 도를 즐기는 태도가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는 인식 하에, 스스로 산거(山居)를 실천하면서 수약(守約)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주위 사람들과 자신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 글이다. 우리나라 양반의 폐습이 더욱 심해 의식에 치중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아 모두 자신의 본분을 잃는다는 내용이다.

「위인지방(爲人之方)」은 사람의 처신에 규모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 방법으로 효우부모(孝于父母)로부터 입신(立身)·망신(亡身)에까지 40여 항목을 열거하였다. 「유초당학자(諭草堂學者)」는 학자로서 지켜야 할 상목(常目)을 입지(立志)·지심(持心)·율신(律身)·역학(力學)으로부터 접인(接人)·발언(發言) 등에 이르기까지 12개 조항을 지목하여 제자들이 지킬 덕목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위학지요(爲學之要)」는 학문의 도리와 방법을 7개 조목으로 정리한 글로서, 자신의 성품의 실질이 성인과 차이가 나지 않으며 성인이 남긴 말이 실제의 생활 속에서 우러나온 것에 대한 깨달음을 학문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권한 글이다. 「군자소인변(君子小人辨)」은 군자와 소인에 대한 구분을 ‘군자는 천명을 두려워하고 소인은 천명을 소홀히 대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모두 32개 조목을 열거하여 변론한 글이다. 전체적으로 그의 학문관은 성리학적 담론이 주류를 이루는 분위기에 어느 정도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의 주류로 성장하기에는 역량 면에서 미흡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잡설(雜說)」은 성리학의 대강을 말하고, 말미에서 이를 근거로 천주교가 유학과 어긋남을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다. 권5의 기(記), 변(辨), 명(銘) 등도 대부분 수양과 의리에 대한 내용이 많다.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에는 김준택의 제(題)의 작성 연도를 ‘수정신미(崇禎辛未)’라는 말에 근거해 1631년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김준택은 제에서 자신이 김필태의 문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숭정후4신미(崇禎後四辛未)’로 읽고 1811년 표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